#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NATIONAL REPERTORY SEASON 2024—2025

ntok.go.kr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NATIONAL REPERTORY SEASON 2024—2025

ntok.go.kr

2024 — 202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프로그램
National Repertory Season Program
4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7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17

국립국악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25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Productions
37

공동주최
Collaborations
47

인사이드 국립극장
NTOK Inside
63

# 2024 — 2025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프로그램
# National Repertory Season Program

| 공연기간 | | 단체 | 공연 | 장소 | 시간 |
|---|---|---|---|---|---|
| 8월 | 8/28 | 국립국악관현악단 | 2024 지휘자 프로젝트 | 달오름 | 수 19:30 |
| | 8/29 — 9/1 | 국립무용단 | 행 +− | 해오름 |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8/29 — 9/28 | 서울예술단 | 창작가무극<br>금란방 | 하늘 | 화, 목, 금 19:30<br>수 15:00, 19:30<br>토 14:30, 19:00<br>일 14:30<br>(9.17 화 / 9.28 토 19시 공연 없음) |
| 9월 | 9/5 — 9/15 | 국립창극단 |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달오름 | 화,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9/12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 해오름 | 목 11:00 |
| | 9/21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달오름 | 토 15:00 |
| | 9/25 — 9/29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댄서스 잡 콘서트 | 해오름<br>달오름 | 수, 목, 금 19:30<br>토, 일 17:00 |
| 10월 | 10/2 | 국립국악관현악단 | 관현악시리즈I<br>정반합 | 해오름 | 수 19:30 |
| | 10/4 — 10/5 | 2024 SPAF | LOD 뮤직씨어터<br>우먼, 포인트 제로 | 달오름 | 금 19:30<br>토 15:00 |
| | 10/11 — 10/12 | 국립오페라단 | 오페레타<br>박쥐 | 해오름 | 금 19:30<br>토 15:00 |
| | 10/12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달오름 | 토 15:00 |
| | 10/16 — 10/20 | 국립극장 | 엔톡 라이브 플러스 | 달오름 | 수, 목, 금 19:30<br>토 15:00, 19:30<br>일 15:00 |
| | 10/17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 해오름 | 목 11:00 |
| | 10/18 — 10/27 | 얘기씨어터컴퍼니 | 우정만리 | 하늘 | 화, 수, 목, 금 19:30<br>토 17:00<br>일 15:00 |
| | 10/31 — 11/3 | 국립무용단 | 2024 안무가 프로젝트 | 달오름 |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11월 | 11/7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 해오름 | 목 11:00 |
| | 11/14 — 11/21 | 국립창극단 | 이날치傳 | 달오름 | 화,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11/23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달오름 | 토 15:00 |
| | 11/29 — 11/30 | 국립국악관현악단 | 관현악시리즈II<br>음악 오디세이: 천하제일상 | 해오름 | 금 19:30<br>토 15:00 |
| | 11/29 — 1/30 | 국립극장 | 마당놀이 모듬전 | 하늘 | 화, 수, 목, 토, 일 15:00<br>금 19:30 |
| 12월 | 12/5 — 12/8 | 국립극장 | 무장애공연<br>몬스터 콜스 | 달오름 |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12/10 | 국립극장 | 무장애공연<br>함께, 비발디와 레스피기 | 해오름 | 화 19:30 |
| | 12/18 — 12/22 | 국립창극단 | 작은 창극 시리즈 | 달오름 |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12/19 — 12/25 | 국립무용단 | 향연 | 해오름 | 화, 목, 금 19:30<br>수, 일 15:00<br>토 15:00, 19:30 |
| | 12/27 | 국립창극단 | 송년음악회 - 어질더질 | 달오름 | 금 19:30 |
| | 12/28 | 국립창극단 | 송년판소리 | 달오름 | 토 15:00 |
| | 12/28 | 서울예술단 | 2024 서울예술단 송년갈라<br>SPACon | 해오름 | 토 19:00 |

프로그램, 공연일정, 출연자 등 공연 정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1월 | 1/3 | 국립국악관현악단 | 2025 신년 음악회 | 해오름 | 금 19:30 |
| | 1/8 — 3/1 | 라이브러리컴퍼니 | 붉은 낙엽 | 달오름 | 화,목,금 19:30<br>수, 토 15:00, 19:30<br>일, 공휴일 14:00, 18:30<br>(1.8 수 19:30 / 1.30 목 14:00 (1회)) |
| | 1/15 | 국립심포니<br>오케스트라 | 2025 시즌 오프닝 콘서트 | 해오름 | 수 19:30 |
| | 1/18 | 국립국악관현악단 |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br>제16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br>국악부문 | 해오름 | 토 17:00 |
| | 1/29 — 1/30 | 국립무용단 | 2025 축제 | 해오름 | 수, 목 15:00 |
| 2월 | 2/22 — 3/7 | 서울예술단 | 창작가무극<br>천 개의 파랑 | 해오름 | 화,목,금 19:30<br>수 14:30,19:30<br>토 14:00, 19:00<br>일 14:00 |
| 3월 | 3/12 | 국립국악관현악단 | 관현악시리즈III *창단 30주년 기념<br>베스트 컬렉션 | 해오름 | 수 19:30 |
| | 3/13 — 3/20 | 국립창극단 |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 | 달오름 | 화,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3/20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 해오름 | 목 11:00 |
| | 3/22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하늘 | 토 15:00 |
| 4월 | 4/2 — 4/19 | 국립극단 | 그의 어머니 | 달오름 | 화,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4/3 — 4/6 | 국립무용단 | 미인 | 해오름 |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4/10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 해오름 | 목 11:00 |
| | 4/12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하늘 | 토 15:00 |
| | 4/12 | 국립극장 | 무장애공연<br>2025 함께, 봄 | 해오름 | 토 15:00 |
| | 4/22 — 5/4 | 국립국악관현악단 | 어린이 음악회<br>신나락 만나락 | 하늘 | 화, 수, 목, 금 11:00<br>토, 일 14:00 |
| | 4/25 — 4/26 | 국립창극단 | 절창V | 달오름 | 금 19:30<br>토 15:00 |
| | 4/25—4/27 | 이마에스트리 | 다큐픽션 창작 오페라<br>이순신 | 해오름 | 금 19:30<br>토, 일 15:00 |
| 5월 | 5/1—5/11 | 극단 예맥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해오름 | 수, 목, 금 19:30<br>화, 토, 일 15:00, 19:30<br>* 5.11 일 14:00 (1회) |
| | 5/2 — 5/4 | 국립극장 | 해외초청작<br>사랑의 죽음 | 달오름 | 금 19:30<br>토, 일 15:00 |
| | 5/9 — 5/25 | 파크컴퍼니 | 고도를 기다리며 | 달오름 | 화, 목, 금 19:30<br>수 15:00<br>토, 일 14:00 |
| | 5/15 | 국립국악관현악단 | 정오의 음악회 | 해오름 | 목 11:00 |
| | 5/16 — 6/28 | 이모셔널씨어터 | 보이스 오브 햄릿 | 하늘 | 화,목,금 19:30<br>수 16:30, 19:30<br>토 15:00, 18:00<br>일 14:00, 17:00<br>(5.17 토, 6.21 토 공연없음 / 6.6 금 15:00) |
| | 5/17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하늘 | 토 15:00 |
| | 5/30 — 5/31 | 국립국악관현악단 | 소년소녀를 위한<br>소소 음악회 | 달오름 | 금 11:00 15:00<br>토 15:00 |
| 6월 | 6/7 — 6/14 | 국립창극단 | 베니스의 상인들 | 해오름 | 화,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6/12 — 6/15 | 국립극장 | 무장애공연<br>헌치백 | 달오름 |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 6/21 | 국립창극단 | 완창판소리 | 하늘 | 토 15:00 |
| | 6/21 | 국립국악관현악단 | 관현악시리즈IV<br>스위치 | 해오름 | 토 15:00 |
| | 6/25 — 6/29 | 국립무용단 | 파이브 바이브 | 달오름 | 수, 목, 금 19:30<br>토, 일 15:00 |

# 국립창극단
#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Madam Ong

극본·가사·연출 고선웅
작창·작곡·음악감독 한승석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09/05/THU
—
2024
09/15/SUN
화,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25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20세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5,000원 /
A 20,000원

다시 보고, 또 봐도 재미있는 고전의 귀환! 창극 역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 번 거머쥐며 대표 스테디셀러로 남은《변강쇠 점 찍고 옹녀》가 5년 만에 돌아온다. 올해는 초연 10주년을 맞아 고선웅-한승석 콤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사한다.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된 판소리 '변강쇠타령'을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로 재해석해 국내외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옹녀의 적극성과 생활력은 이 시대 모두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개성 강한 캐릭터의 배꼽 잡는 연기, 유쾌한 말맛과 딱 맞아떨어지는 흥겨운 우리 음악으로 시종일관 어깨를 들썩이게 할 것이다.

The long-standing hit changgeuk《Madam Ong》, which has made a significant mark in changgeuk history, returns after five years.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its premiere, and the duo of Koh Sun-woong and Han Seung-seok presents an even more elevated performance. This vibrant story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pansori 'Byeongangsoe Taryeong', which has received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cclaim, conveying the message of positivity and hope coming from Madam Ong (Ongnyeo) 's proactive nature and resilience. The stage will offer great amusement, with authentic characters, humorous performances, animated dialogue, and cheerful Korean music.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여성상"
조선일보

"도저히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한국경제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이날치傳
# The Story of Lee Nal-chi

연출 정종임
극본 윤석미
작창 윤진철
작곡 손다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1/14/THU
—
2024
11/21/THU
화,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50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5,000원 /
A 20,000원

《이날치傳》은 양반집 머슴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소리꾼이 된 고집 센 남자의 이야기다. 조선시대 신분사회가 무너지면서 천민들에게 신분에 대한 지각이 생길 때 사회 규범에 치열하게 저항한 그는 최고의 명창이 되기 위해 줄광대, 고수를 마다하지 않았고, 신분이 내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세월을 기다리는 불굴의 사랑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소리만을 위해 살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간, 그렇게 인생과 소리에서 득음을 한 아름다운 광대 이날치가 '날치답게' 살다 간 소리 인생의 신명나는 놀이판을 선보인다.

《The Story of Lee Nal-chi》 is about a man born as a servant in a noble household who becomes the greatest singer in the Joseon Dynasty. Lee Nal-chi fiercely resisted the class-based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He strived to become the best singer by embracing all forms of performance, such as tightrope walking and playing drums, and he embraced a love that transcended social status. His life, marked by relentless pursuit of his art and love, has reached the pinnacle of musical mastery. The beautiful entertainer who lived solely for love and music, Lee Nal-chi, presents an exhilarating performance of his life as a singer, living true to himself.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작은 창극 시리즈
# Short Changgeuk Series

〈옹처〉
연출 이철희 극본 김민정
작창 장서윤
〈덴동어미 화전가〉
연출 서정완 극본 김민정
작창 박정수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2/18/WED — 2024 12/22/SUN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35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40,000원 / S 30,000원

젊은 작창가의 진중한 고민과 반짝이는 상상력을 마주하다! 2022년 국립창극단은 동시대와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신진 작창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국립창극단 작창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젊은 작창가들이 1년간의 창작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은 전통적 요소에 현대적 감각을 버무려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옹처〉와 〈덴동어미 화전가〉를 한층 완성도 높은 창극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선보인다. '옹고집타령'을 흥미진진하게 비튼 〈옹처〉, 조선시대 내방가사를 아름다운 소리로 풀어낸 〈덴동어미 화전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Experience the innovation and creativity of the next generation of pansori composers in 'The Pansori Composer Project' by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Launched in 2022, this project is now presenting new interpretations of 〈Ongcheo〉 and 〈Hwajeonga of Dendong-Eomi〉, blending traditional elements with modern nuances in a way that has been widely praised. Join us and be inspired by Jang Seo-yoon's 〈Ongcheo〉, a fascinating twist on the 'Onggojip Taryeong', and Park Jung-soo's 〈Hwajeonga of Dendong-Eomi〉, a graceful interpretation of naebang-gasa, the song of the inner chambers from the Joseon dynasty.

‡
"신진 작창가들의 도전과 실험, 미래의 창극 발견"
헤럴드경제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송년음악회-어질더질
# The Closing-2024 Year End Concert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2/27/FRI
금 19:30

공연시간
90분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전석 30,000원

올 한 해 국립창극단을 아끼고 사랑해 준 관객들을 위해 넉넉하고 풍성한 소리를 가득 담은 종합선물세트 공연을 준비한다. 창극단 기악부의 신명나는 시나위, 기악 합주 등과 다양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남도민요 합창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선보이는 창극 대목의 하이라이트는 판소리 5바탕 중 숨겨진 눈대목을 재발견하는 재미를 더한다. 송년을 맞아 국립창극단이 선보이는 잔치 한마당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새로이 맞이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우리 모두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를 함께 해 보자.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unwavering support, we present a performance filled with beautiful and abundant sounds. This exceptional performance features the thrilling Sinawi by the musicians of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and a Southern folk song choir accompanied by instrumental ensembles and various dance movements. Your presence at this festive celebration with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will help us create precious memories as we close the year and welcome the Year of the Snake in 2025 with wishes for prosperity and peace.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
# Boheoja – The One Who Paces the Void

연출 김 정
극본 배삼식
작창 한승석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3/13/THU — 2025 3/20/THU
화,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50분(휴식 15분 포함)예정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5,000원 / A 20,000원

조선 제7대왕 세조(1417-1468). 부친인 세종의 위업을 계승한 '치적군주'로 알려진 수양대군의 뒤에는 그의 권력욕에 의해 희생된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중심에 있다. 눈부신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안평은 형 수양과는 다르게 현실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갈망했다. 정치적 야망 속에서도 동생 안평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는 수양과 정치적 야망보다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 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안평의 행보는 어쩌면 허공을 걷는 것과 같은 안개 속의 발자취가 아니었을까? 깊이 있는 구성, 풍자와 해학이 고루 돋보이는 연출로 동아연극상, 두산연강예술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김 정이 연출을 맡고, 창극에 최적화된 언어의 마술을 선보이는 배삼식 작가의 극본과 작창(作唱)의 신(神)이라 칭송받는 한승석의 주옥같은 음악은 창극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이다.

The seventh king of Joseon, King Sejo (1417–1468), is known as one of the ablest rulers in Korean history, having built upon the legacy of his father, King Sejong. Behind his rule, however, lies the tragic story of Grand Prince Anpyeong, Sejong's third son, who fell victim to Sejo's ambition for power. One rose to reign over all, while the other met a tragic end, driven into misfortune as a prince. Through their intertwined fates, the narrative draws us into the depths of a tale depicting a yearning for transcendence and freedom.

Directed by Kim Jeong, known for his profound compositions and distinctive satire and humor, with a script by Pai Sam-shik, renowned for his engaging storytelling, and Han Seung-seok infusing the work with vitality through his musical composition.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절창 V
# Peerless Pansori V

연출 민준호
출연 왕윤정
김율희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4/25/FRI — 2025 4/26/SAT
금 19:30 / 토 15:00

공연시간
10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40,000원 / S 30,000원

아주 뛰어난 소리를 뜻하는 '절창(絶唱)'은 판소리의 동시대성을 참신한 구성으로 표현하는 국립창극단의 프로젝트 공연이다. "판소리를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걸작"이라는 호평에 힘입어 2021년부터 매해 한 작품씩 선보여 오고 있다. 2025년 다섯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의 왕윤정과 국악그룹 '우리소리 바라지'의 소리꾼 김율희다.

왕윤정은 최근 창극 〈리어〉의 리건과 〈정년이〉의 허영서로 분해 관객을 사로잡았고, 김율희는 전통 소리를 바탕으로 레게, 재즈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판소리 '흥보가'를 재료 삼아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할 두 여성 MZ 소리꾼의 소리 아우라에 흠뻑 빠져볼 기회다.

'Peerless Pansori' is a project performance by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that creatively depicts the contemporary nature of pansori through innovative compositions. It also means 'master singer with no match'. Since 2021, a new work has been presented annually. The fifth stage in 2025 will feature the captivating performances of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s Wang Yoon-jung and Kim Yul-hee, a versatile singer from the traditional music group 'Baraji'. This stage will offer the pansori 'Heungbo-ga' as its foundation, allowing these two talented female singers of the new generation to showcase their extraordinary vocals.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베니스의 상인들
# The Merchants of Venice

연출 이성열
극본 김은성
작창 한승석
작곡 원 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6/7/SAT — 2025
6/14/SAT
화,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70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VIP 80,000원 / R 60,000원 /
S 40,000원 / A 20,000원

낭만적이고 유쾌한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이 초연한 지 2년 만에 다시 관객을 찾는다. 셰익스피어 대표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현대적 창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서양 고전과 한국 판소리의 조화를 통해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자신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시작되는 원작을 대자본에 대항하는 젊은 소상인들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의 힘으로 빚어내는 희망을 그린다. 연출 이성열, 극본 김은성, 작창 한승석, 작곡 원일 등 각 분야 최고의 거장과 국립창극단이 의기투합한 대형 창극으로 환상적인 무대 미학 아래 40여 명의 출연진이 선사하는 시원한 소리와 후련한 웃음 한바탕이 백미다.

《The Merchants of Venice》 returns to audiences two years after its premiere. This work reinterprets Shakespeare's famous comedy 〈The Merchant of Venice〉 as a modern changgeuk, blending Western classics with Korean pansori to evoke universal empathy, and portraying the hope created through the communal solidarity and the power of love. Directed by Lee Sung-youl, with a script by Kim Eun-seong, pansori composition by Han Seung-seok, and composed by Won Il, this grand changgeuk is a collaboration of top talents in each field alongside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featuring the exhilarating sound and refreshing humor delivered by the cast with the stunning stage aesthetics.

‡

"탄탄한 극의 구성과 출중한 실력을 갖춘 출연진, 높은 완성도를 자랑"
연합뉴스

"3시간의 코미디는 극장에서 관객을 웃겼지만, 5분간의 아이러니는 사회 부조리의 불편함을 오랜 기간 상기하게 만들었다."
월간객석

국립창극단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 완창판소리
#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해설 · 사회 유은선
2024 송재영 서정금
김차경
2025 장문희 임현빈
이소연 이선희

장소
국립극장 2024
달오름
Daloreum Theater
국립극장 2025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2024
9/21/SAT
10/12/SAT
11/23/SAT
12/28/SAT
2025
3/22/SAT
4/12/SAT
5/17/SAT
6/21/SAT
토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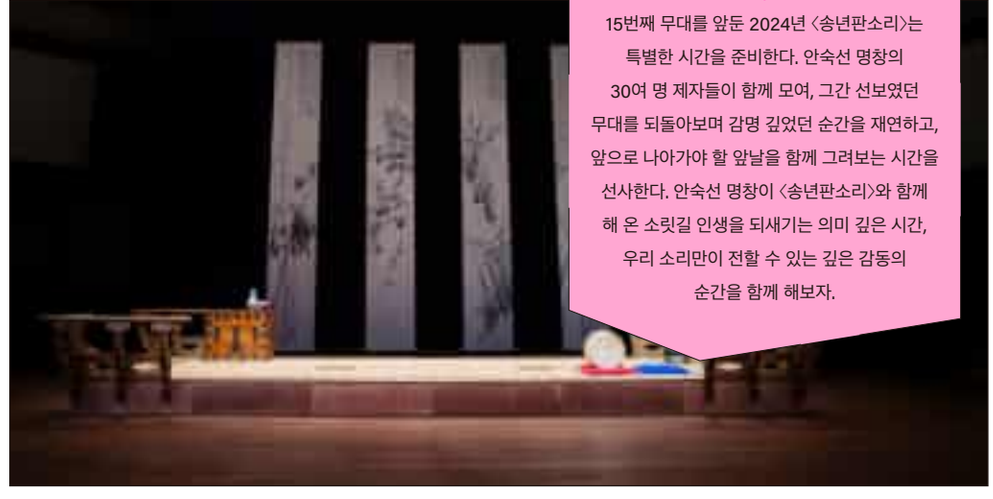
공연시간
미정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
송년판소리 30,000원
(12월 28일)

1984년부터 지금까지, 당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올라 단단한 내공을 선보였던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짧게는 세 시간, 길게는 여덟아홉 시간까지 오로지 고수의 북장단에 의지해 판소리를 완창(完唱)한다는 것은 소리꾼에게나 그 자리에 함께하는 관객에게나 특별한 도전이다. 소리꾼에게는 최고 권위의 판소리 무대를, 관객에게는 명창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하반기 귀한 무대를 이어나갈 명창은 송재영 · 서정금 · 김차경, 2025년 상반기에는 장문희 · 임현빈 · 이소연 · 이선희다. 소리의 이면과 창자, 고수에 대한 친절한 해설도 매 공연마다 곁들여져 소리 듣는 재미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다.

Since 1984,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s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has presented the mastery of the finest singers of the time. Performing pansori in full version, relying solely on the rhythm of the drum for durations ranging from three hours to as long as eight or nine hours, is a unique challenge for both the singer and the audience. For the singers, it is the most prestigious pansori stage, while for the audience, it offers a valuable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art of the master singers fully. Each performance is accompanied by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stories, the singers, and the drummers, enhancing the enjoyment of the audience and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art.



‡

15번째 무대를 앞둔 2024년 〈송년판소리〉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다. 안숙선 명창의 30여 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 그간 선보였던 무대를 되돌아보며 감명 깊었던 순간을 재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앞날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안숙선 명창이 〈송년판소리〉와 함께 해 온 소릿길 인생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시간, 우리 소리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해보자.

# 국립무용단
#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 행 +−
# Hang PlusMinus

안무·연출 안애순
음악 김홍집 이진희
무대 김종석
의상 김영진
조명 후지모토 타카유키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8/29/THU
—
2024
9/1/SUN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6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VIP 70,000원 /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춤으로 탐닉해 온 현대무용계 거장 안애순과 한국춤에 동시대적인 질문을 던져온 국립무용단의 역사적인 첫 만남.

신작 〈행 +−〉(행 플러스마이너스)는 전통이라는 거대하고도 깊은 필연적 뿌리에 현대적 혹은 개인적 파편들을 더하고 빼며 한국춤의 새 영역을 개척해간다. 이번 무대에서 눈 여겨 볼 점은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국립무용단 40여 무용수의 다채로운 움직임이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한국적 컨템퍼러리란 무엇인지 집요하게 자문하고 모색하며, 아직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움직임들을 포착해 펼쳐낸다.

국내외 최정상급 제작진과의 진화된 협업도 기대를 모은다. 음악은 '화차' '길복순' 등 영화씬에서 활약해온 김홍집과 이진희가 공동으로 맡는다. 한복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상디자이너 김영진(차이킴), 무용에 대한 깊은 이해로 춤과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하는 무대디자이너 김종석,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동하는 색감과 감각적인 빛을 선보이는 조명디자이너 후지모토 타카유키 등이 함께한다.

Renowned contemporary dance choreographer Ahn Ae-soon collaborates with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for the first time. Known for explor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 through dance, Ahn Ae-soon now focuses on the movements and bodies of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s dancers,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Korean dance. The title《Hang PlusMinus》also refers to a traditional dance movement, symbolizing the accumulation of time, space, and movement, progress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into a new world. This performance showcases a blend of the dancers' concentrated energy, individuality, and playfulness, resulting in a unique and groundbreaking work that sets a new milestone in the performing arts.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 2024 안무가 프로젝트
# NDCK Project
# 2024

안무 정길만
이재화
최종인
출연 2024
국립무용단 청년
교육단원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0/31/THU
—
2024
11/3/SUN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2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40,000원 /
S 30,000원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갈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자 발굴에 앞장서 온 국립무용단이 이번에는 무용수 양성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앞으로의 무대가 기대되는 3명의 안무가 (정길만·이재화·최종인)와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0여 명의 차세대 무용수(2024년 국립무용단 청년 교육단원)의 만남은 더없이 뜨겁다. 예술가들에게는 제한된 30분 내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무대이자, 관객들에게는 한 무대에서 3편의 신작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무대가 될 것이다. 창작자들의 진중한 고민과 발랄한 상상력이 빚어내는 무용의 내일을 만나보자.

A stage to meet the artist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n dance! Three choreographers (Jung Gil-man, Lee Jae-hwa, Choi Jong-in), whose future works gather high anticipation, join together with about 20 next-generation dancers selected through auditions last April (the 2024 National Dance Company Young Dancers) to create the future of dance through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lively imagination. This stage will be an intense challenge for the artists, who must pour everything into a limited 30-minute performance. For the audience, it will be a gift-like experience to encounter three new works on the same stage.

©황필주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 향연
# The Banquet

총 예술감독 조흥동
연출 · 시노그라피 정구호
안무 이매방
조흥동
김영숙
양성옥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12/19/THU
—
2024
12/25/WED

화, 목, 금 19:30 / 수, 일 15:00
토 15:00, 19:30

공연시간
9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VIP 70,000원 /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2015년 초연 이후 '한국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한국무용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향연》이 6년 만에 다시 관객을 만난다. 한국춤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내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언론과 동시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춤의 대가들이 모여 종묘제례의 궁중무용, 바라춤과 같은 종교의식무, 장구춤과 같은 민속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로 풀어낸다. 무대 위 함축적으로 담긴 한국적 미학과 50여 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국무용의 품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무대.

《The Banquet》, the acclaimed production that sparked a Korean dance syndrome, returns after six years. Since its premiere in 2015, it has received rave reviews from the media and audiences for its sophisticated stage that encapsulates the essence of Korean dance. The performance features eleven colorful traditional dances, including court dances, religious dances, and folk dances, each adorning the stage in new seasonal outfits. Choreographed by Jo Heung-dong, the dances range from reverent movements and delightful steps, while Jung Ku-ho's direction enhances the performance by stripping away decorative extravagance and embracing simplicity, creating a breathtaking spectacle.

‡

"매진, 매진, 또 매진…
한폭의 명화처럼 펼쳐낸 한국무용"
조선일보

"놀랄 만큼 모던한 한국춤.
〈향연〉의 이유있는 흥행"
중앙일보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 2025 축제
# Festival 2025

예술감독 · 안무 김종덕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1/29/WED
—
2025
1/30/THU

수, 목 15:00

공연시간
7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A 20,000원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국립무용단의 풍성한 한국춤 잔치가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진다. 설 명절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링 공연으로 자리매김한《축제(祝 · 祭)》는 시대에 따라 예술의 역할과 미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 평균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현생의 걱정도 잊게 한 시간" "멋진 기량과 흥에 취했다" 등의 호평을 받아왔다. 국립무용단이 여덟 번째로 선보이는 명절 기획공연으로, 다양한 소품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 모아 관객 모두에게 축원을 전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우리 춤의 재미를 선사한다. 품격과 격식을 담은 전통춤 레퍼토리와 창작 춤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에 멋과 흥을 더할 시간이다. 설 연휴 색다른 문화 나들이를 즐기고 싶은 이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다.

In 2025, the Year of the Blue Snake,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will present a grand celebration of Korean dance at the Haeoreum Theater.《Festival》has established itself as a bestselling performance representing the Lunar New Year, opening the new year at Namsan and offering blessings to the audience while delivering the joy of Korean dance to people of all ages. The performance features both traditional dance repertoires embodying elegance and formality, as well as creative dances, adding splendor and excitement to the holiday season for the whole family. It is a must-see for those who enjoy a unique cultural outing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

"남녀노소 · 국적 불문 보고
즐기기에 부담이 없다."
매일경제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 미인
# Beauty

연출 양정웅
안무 정보경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4/3/THU
—
2025
4/6/SUN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6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VIP 70,000원 /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부터 영화·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국가대표' 연출가 양정웅이 드디어 한국무용과 만난다! 양정웅은 한국 전통의 미(美)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세련된 무대 미학과 현대적 연출감각으로 아름다움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무는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코치로 활약하는 등 동시대 한국무용의 대표주자 정보경이 맡았다. 이번 무대는 여성 무용수만으로 구성하여 섬세한 춤선을 더욱 극대화한다. 2025년 4월, 한땀 한땀 이어놓은 조각보가 펼쳐지듯 다채로운 미장센과 아름다운 춤사위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Renowned Korean director Yang Jung-woong, acclaimed for his work across diverse fields—ranging from the Winter Olympics ceremonies to films, plays, and musicals—is now embracing the world of traditional Korean dance. His latest project, 《Beauty》, seeks to reimagine the essence of traditional Korean aesthetics with sophisticated staging and a modern touch, offering a fresh perspective on beauty. Choreography will be led by Jung Bo-kyung, a prominent figure in contemporary Korean dance. Featuring an all-female cast from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the production will highlight the elegance inherent in traditional Korean dance. Premiering in April 2025, this masterpiece promises to captivate audiences with its vibrant, patchwork-like mise-en-scène and graceful movements.

국립무용단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 파이브 바이브
# Five Vibe

안무·연출 예효승
콘셉트·구성 박진영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6/25/WED
—
2025
6/29/SUN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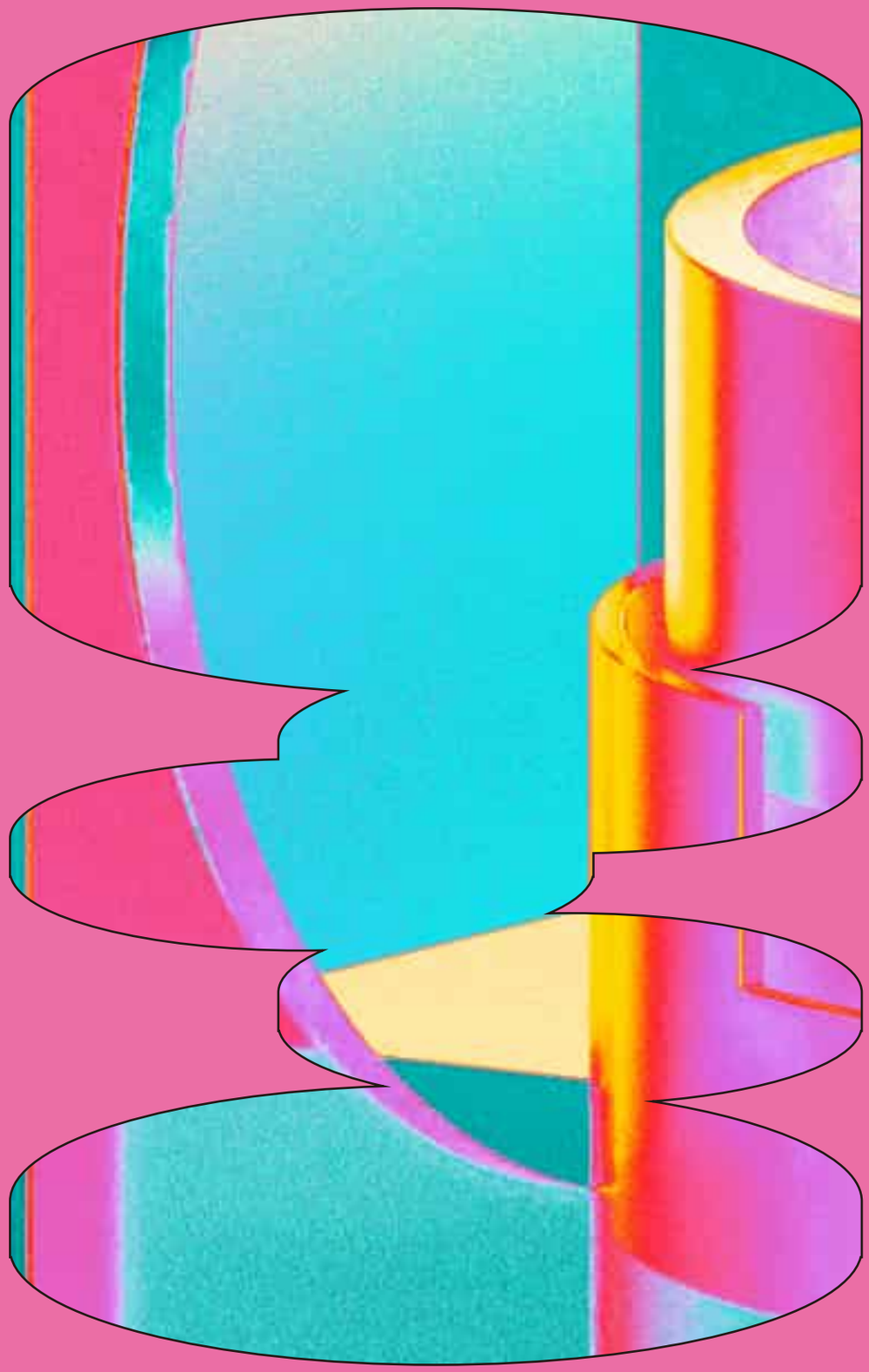
공연시간
6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40,000원 / S 30,000원

새로운 남성 한국춤 신드롬을 예고하는 국립무용단 신작. 벨기에 레 발레 세드라베 소속 무용수이자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 온 예효승이 안무·연출한다. 남성 무용수들로만 구성된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의 순환적이며 묵직한 호흡, 우아한 춤선부터 격정적 몸짓까지 한국 남성 춤의 다채로운 매력을 끌어낸다. 유연한 호흡을 따라 확장되는 드라마틱한 움직임과 리드미컬함을 고조시킬 음악이 어우러지며 만드는 강렬한 파동을 느껴보자.

The National Dance Company's production features choreographer Ye Hyo-seung from Belgium's les ballets C de la B, a leader in contemporary dance trends, along with Korea's top male dancers, presenting explosive energy. Based on the unique breathing techniques of Korean dance, this performance exudes boundless freedom and dynamism, creating an overwhelmingly powerful stage. Ye Hyo-seung's original movements, and the graceful dance of the male performers, this stage promises to immerse the audience in a surge of energy.



# 국립국악관현악단
#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2024 지휘자 프로젝트
# 2024
# Conductor Project

지휘 김다솔
협연 김예성 (플루트)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8/28/WED
수 19:30

공연시간
8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국악관현악을 위한 차세대 지휘자의 등용문이 된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2024년에는 지휘자들의 선발 과정에 단계를 두어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졌다. 공모를 통해 총 6인의 지휘자를 1차 선정하고,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진행해 공연을 위한 최종 지휘자를 선정했다. 이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모든 공연 연습을 참관하며 실내악 · 관현악 등 연습 지휘, 시연회 지휘, 마스터 클래스 ·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친 지휘자는 약 6개월의 다각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한층 성장했다. 신진 지휘자가 엄선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완성한 레퍼토리를 통해 우리 음악의 미래 가능성을 가늠해보자.

〈Conductor Project〉 of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serves as a gateway for the next generation of conductors in Korean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six conductors were initially chosen, followed by various workshops and programs. The final conductor Kim Da-sol, was selected for the performance. He has since grown significantly through comprehensive training programs, including all performance rehearsals and workshops with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his performance prese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future potential of Korean music through diverse repertoires carefully selected by this emerging conductor and performed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관현악단의 대표주자인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자에게 국악의 현 흐름에 맞는 이해도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 더욱 이 프로젝트가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가 지속, 발전되어 많은 지휘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 볼 귀한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진지한 표정과 훌륭한 연주, 최선을 다하는 지휘자의 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휘자 프로젝트'라 지휘자를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관심있게 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시간가는 줄 몰랐다."

관객 후기 중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I

# 정반합
# Thesis, Antithesis, Synthesis

지휘 채치성
위촉 작곡 신윤수
최덕렬
채치성
협연 강주희 (태평소)
김대윤 (남창 가객)
국립합창단 (합창)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10/2/WED
수 19:30

공연시간
9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정반합은 헤겔의 변증법으로, 논리적인 전개 방식의 일종이다. '정'은 지속되어 온 상태를 의미하며, '정'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은 '반'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에, '반'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여 '합'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합'도 모순적인 한계를 지니므로 다시 '정'이 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이라는 '정'의 상태에서 여러 예술감독을 만나며 '반'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들을 지속해왔다. 이번 《정반합》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8대 예술감독 겸 단장인 채치성과 함께, 그동안의 작업을 바탕으로 '합'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자 한다.

'Thesis, Antithesis, Synthesis' is a dialectical process proposed by Hegel, a logical progression suggesting that one can approach the truth closer through the repeated process of thesis, antithesis, and synthesis.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in its state of 'thesis' as a traditional music orchestra, has encountered various artistic directors who introduced 'antithesis' through new and innovative projects.

In this performance, 《Thesis, Antithesis, Synthesis》, with the direction of its 8th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Chae Chi-sung, the orchestra aims to depict the beginning of a journey towards 'synthesis', building on their past work and moving forward.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II

# 음악 오디세이: 천하제일상
# Music Odyssey: The Great Merchant

지휘 김유원
작·편곡 (로그인 BGM) 손다혜
강한뫼 성찬경
장태평 정 혁
홍민웅
협업 AK Interactive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11/29/FRI — 2024 11/30/SAT
금 19:30 / 토 15:00

공연시간
70분(휴식 미정)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천하제일상 거상'과 게임 음악 콘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혁신과 실험의 아이콘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국내 최초 경제 전략 MMORPG '천하제일상 거상'과 손잡고 16세기 조선 시대로의 음악 모험을 떠난다.
'천하제일상 거상'을 대표하는 로그인 BGM을 비롯해 조선·일본·대만·중국·인도 등 각 필드별 게임 음악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해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 음악에 맞춰 게임 영상이 상영되는 일방향 형식에서 탈피해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선호 작품에 투표하고 그 내용을 자막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공연이다. 현장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작품은 앙코르로 다시 연주되고, 해당 작곡가에게는 '천하제일상'을 수상하는 등의 게임 요소를 적극적으로 가미했다.
전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천하제일상 거상'의 협업 무대가 큰 기대를 모은다.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partners with the first domestic economic strategy MMORPG 'The Great Merchant' and embarks on an adventurous musical journey set in the 16th-century Joseon Dynasty. This game music concert reinterprets the game's iconic login BGM and regional field music into traditional Korean orchestration. The concert includes interactive elements that allow the audience to participate indirectly, along with game-inspired features to enhance the fun. This collaboration between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and 'The Great Merchant', sharing a common theme of tradition, promises a highly anticipated performance.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2025 신년 음악회
# New Year's Concert

지휘 박천지
협연 국歌대표 (소리)
윤현상 (비브라폰)
홍지혜 (생황)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1/3/FRI
금 19:30

공연시간
9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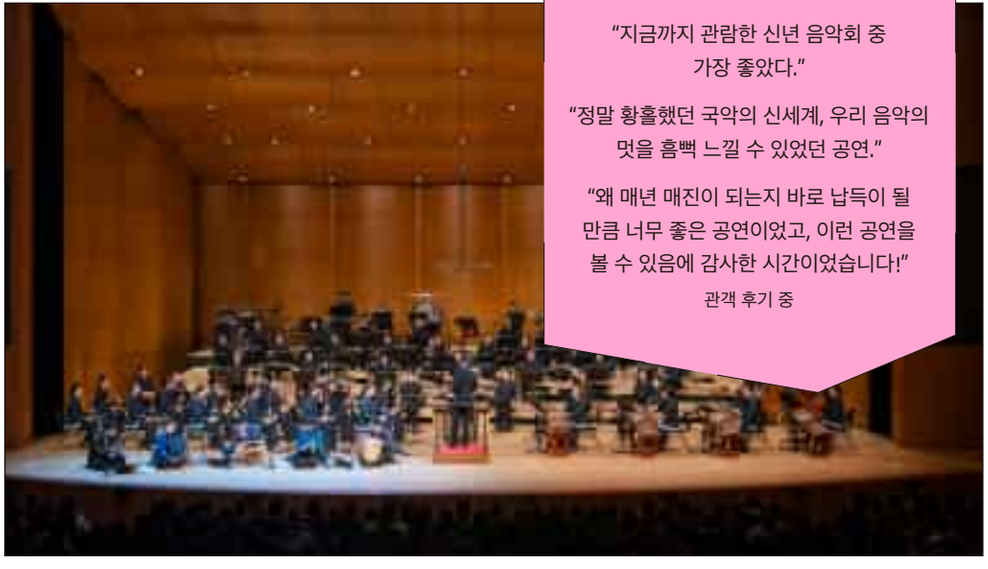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새해를 우리 음악으로 맞이하고 기억하고자 2020년 처음 기획된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는 관객의 호평 속에서 지속적인 매진 행렬을 이어오며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신년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 신년 음악회》는 박천지 지휘자와 함께 품격 있고 신명나는 국악관현악 주요 레퍼토리와 더불어 기존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가 아닌 국립창극단 대표 소리꾼 이광복, 최용석, 유태평양, 김수인으로 구성된 국歌대표와의 협연 무대를 준비한다. 이밖에도 국립국악관현악단 홍지혜 단원(생황), 비브라폰 연주자 윤현상과의 협연 등 우리 음악과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음악 성찬으로 관객의 기운찬 새 출발을 기원하는 이번 공연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푸른 뱀의 해를 열어줄 최상의 공연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한 음악 선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The 〈New Year's Concert〉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flagship New Year's performance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continuing its sold-out streak with high praise from audiences.

The 《New Year's Concert》 features conductor Park Cheun-ji and elegant and exhilarating selections of major Korean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repertoires, along with collaborative stages with major artists of NCCK. This concert, offering a rich feast of music that crosses genres, promises to open the Year of the Blue Snake with the best performance, wishing the audience a vibrant new start.



‡

"지금까지 관람한 신년 음악회 중 가장 좋았다."

"정말 황홀했던 국악의 신세계, 우리 음악의 멋을 흠뻑 느낄 수 있었던 공연."

"왜 매년 매진이 되는지 바로 납득이 될 만큼 너무 좋은 공연이었고,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관객 후기 중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 제16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 16th ARKO Contemporary Orchestra Music Festival : Korean Music

지휘 김성국
작곡 김상진 김신애 이정호 최윤숙 최지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1/18/SAT
토 17:00

공연시간
9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30,000원 / S 20,000원 / A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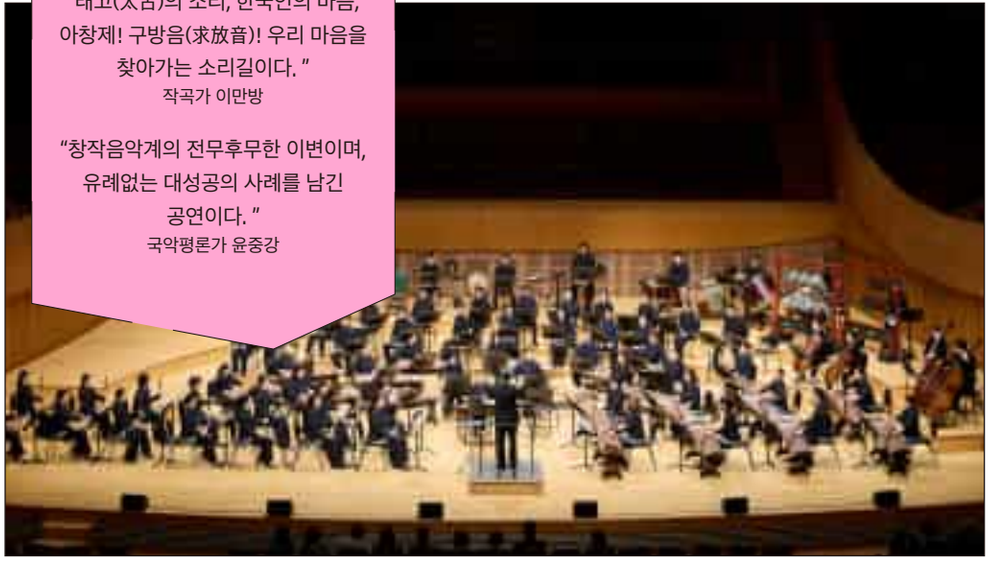
현시대 가장 창의적인 음악이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와 만나 최상의 음악으로 완성된다. 한국 창작 음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국립극장과 ARKO 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가 손잡았다. 〈제15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이후 아창제는 2년 만인 2024년 《제16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작품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해오름극장의 최적의 사운드로 그 매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현재 가장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으로 한국 음악의 미래를 선도할 작곡가의 작품을 가장 먼저 만나보자.

Aiming to elevate and advance Korean creative music,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the ARKO Contemporary Orchestra Music Festival have joined hands to present the 《16th ARKO Contemporary Orchestra Music Festival: Korean Music》. Through a creative works contest returning two years after the 15th festival, the selected pieces will be performed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with their impeccable performances, maximizing their charm with the optimal sound of the Haeoreum Grand Theater. It would b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works of composer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n music, the music with the most experimental and challenging spirits today.

‡

"태고(太古)의 소리, 한국인의 마음, 아창제! 구방음(求放音)! 우리 마음을 찾아가는 소리길이다."
작곡가 이만방

"창작음악계의 전무후무한 이변이며, 유례없는 대성공의 사례를 남긴 공연이다."
국악평론가 윤중강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III / 창단 30주년 기념

# 베스트 컬렉션
# Best Collection

지휘 한상일 김재영
위촉 작곡 원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3/12/WED
수 19:30

공연시간
9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1995년 창단 이후 30주년을 맞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기념공연 《베스트 컬렉션》은 30년간 축적된 국악관현악 명곡들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2015년 창단 20주년 기념 〈베스트 컬렉션〉은 단원들이 직접 선정한 레퍼토리를 재편곡해 무대에 올렸다면, 2025년 공연은 악단의 연주 곡목을 시기별로 나누고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과거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1996-1998) 및 단장(2000-2003)직을 역임한 한상일과 1999년 단체의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김재영이 각각 1부와 2부 지휘를 맡고 5대 예술감독 원일이 30주년 기념곡을 위촉 작곡하는 등 오랜 시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며 서로의 음악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출연진과 제작진이 동행해 그 의미를 더한다.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its founding in 1995, presents a commemorative performance titled《Best Collection》, reflecting on the masterpieces of Korean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accumulated over the past 30 years. The 2025 performance will divide the orchestra's repertoire by period and perform pieces representative of each era. Notably, this concert will feature conductor Han Sang-Il, the principal conductor of 1996-1998 and the artistic director of 2000-2003, and conductor Kim Jae-young, the principal conductor of 1999, and the 30th-anniversary composition by the fifth artistic director, Won Il. The event will be enriched by the participation of performers and production staff who deeply understand each other's musical worlds through their long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어린이 음악회
# 신나락 만나락
# Shinnarak Mannarak

작가 구도윤
연출 박인혜
음악감독 및 작곡 이고운

장소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2025
4/22/TUE
—
2025
5/4/SUN
화, 수, 목, 금 11:00 / 토, 일 14:00

공연시간
5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2004년 처음 시작해 21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린이 음악회.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시도를 담아 어린이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지정된 객석에 앉아 음악회를 관람하던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국악기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했다. 신과 인간이 함께 즐거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어린이 음악회《신나락 만나락》은 신화를 매개로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어린이 음악회 명가로 자리 잡은 국립국악관현악단만의 어린이 공연 제작 노하우가 담긴 새로운 신작을 놓치지 말자.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 children's concert, now in its 21st year since 2004, aspires to bring young audiences closer to traditional Korean music. This year, moving away from the past format of watching the concert from designated seats, the young audience will be invited onto the stage to see and touch the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up close. The children's concert《Shinnarak Mannarak》, meaning 'Gods and humans rejoice together', showcases the diverse charm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the medium of mythology.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소년소녀를 위한
# 소소 음악회
# Youth Concert

지휘 장태평
연출 이기쁨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5/30/FRI
—
2025
5/31/SAT
금 11:00, 15:00 / 토 15:00

공연시간
7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30,000원 / S 20,000원

소년소녀를 위한《소소 음악회》는 '국악 입문 맛집'으로 정평이 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청소년 맞춤 공연으로,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를 두루 갖춰 호평 받았다. 웅장한 국악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각적인 음향, 스펙터클한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져 공연장을 낯설고 경직된 곳이 아닌 친숙한 '국악 콘서트' 현장으로 변모시킨다.

2025년에는 작곡·연출·무대·영상 등 각 분야의 고수들과 힘을 합쳐 소년소녀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국악 공연으로 무대를 꾸민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와도, 공연장에서 웃고 즐기는 사이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며 성장하는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The《Youth Concert》is a tailored performance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for young audiences, praised for its visual and auditory delights. Combining the grandeur of a traditional Korean orchestra with spectacular sound, lighting, and video effects, it transforms the concert hall from an unfamiliar and rigid place into a welcoming concert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2025 Youth Concert, masters in composition, direction, stage, and video join and collaborate to create a traditional Korean music performance where young audiences can forget their stressful daily lives and enjoy.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도 꿈을 향해 나아가며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공연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관객 후기 중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관현악시리즈IV

# 스위치
# Switch

지휘 정치용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KBS교향악단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6/21/SAT

토 15:00

공연시간
110분(휴식 30분 예정)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
A 20,000원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관현악시리즈IV《스위치》로 2024-2025 시즌의 대미를 장식한다. 국악관현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작 레퍼토리의 음악적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서양 클래식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경우는 있어왔지만, 단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문 것이 아쉽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출연, KBS 교향악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서로의 레퍼토리를 교환해 연주하며 빚어내는 양악과 국악의 각기 다른 매력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concludes its season with《Switch》, aiming to explore the potential of Korean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and broaden the musical scope of its creative repertoires. The performance is divided into two parts,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exchanging and performing each other's repertoires, allowing for a comparative appreciation of the distinct charms of Western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국립국악
관현악단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정오의 음악회
# Midday Concert

지휘
2024/9,11 2025 상반기 최동호
2024/10 김다솔
해설 이금희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9/12/THU
10/17/THU
11/7/THU

2025
3/20/THU
4/10/THU
5/15/THU

목 11:00

공연시간
7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30,000원 / S 20,000원

2009년 시작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의《정오의 음악회》는 매달 친절한 해설과 다채로운 국악관현악 프로그램을 선보여, 처음 접하는 관객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립극장 대표 스테디셀러 공연이다. 친숙한 음악부터 대중가수 · 뮤지컬배우 · 소리꾼 등과 함께하는 코너,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로 관객의 신청곡을 연주하는 '정오의 리퀘스트'까지!

60여 명 연주자의 웅장한 사운드와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 이금희의 해설, 소담한 간식과 남산의 풍경은 오직《정오의 음악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품격있는 즐거움이다. 2024년 하반기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차세대 지휘자 김다솔이 함께한다.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s《Midday Concert》, which began in 2009, is a hallmark performance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offering friendly commentary and a variety of Korean traditional orchestral programs every month and becoming an authentic steady seller. The program features familiar music, collaborations with the artists from various genres, along with a new segment introducing audience stories this season.

The grand sound of over 60 musicians, commentary by renowned Korean announcer Lee Keum-hee, delightful snacks, and the picturesque view of Namsan offer a unique and elegant experience exclusive to the《Midday Concert》.

# 국립극장 기획
# NATIONAL THEATER OF KOREA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 엔톡 라이브 플러스
# NTOK Live+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0/16/WED
—
2024
10/20/SUN
수, 목, 금 19:30 / 토 15:00, 19:30 / 일 15:00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NTOK Live+(엔톡 라이브 플러스)는 전 세계 최정상급 공연을 국립극장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월 NTOK Live+는 미묘하고 섬세한 인물들의 관계와 심리를 파헤치는 세 작품을 선보인다.

올리비에상 수상에 빛나는 영국 국립극장의《디어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축구 감독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와 국가대표 남자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그려낸 히트작이며,《바냐》는 안톤 체호프의 대표 희곡을 파격적으로 각색한 1인극으로, 앤드루 스콧의 명연기를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 연출의《입센의 집》은 2022년 9월 국내 상영 당시 관객에게 호평받아, 2년 만에 극장을 찾는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비극적인 대서사가 펼쳐진다.

NTOK Live+ is to present the most acclaimed performances from around the world to the screen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October, we introduce three productions that delve into the intricate and subtle relationships and psychologies of the characters.

NT Live《Dear England》is the play which is James Graham's gripping examination of nation and soccer game. In NT Live《Vanya》, hopes, dreams and regrets are thrust into sharp focus in this one-man adaptation which explores the complexities of human emotions. ITA Live《Ibsen house》returns after its first screening in 2022 which was praised for an intriguing and rich adaptation.

## NT Live 〈디어 잉글랜드〉
## Dear England

연출 루퍼트 굴드
원작 제임스 그레이엄
제작 영국 국립극장

일시
2024 10/16/WED
2024 10/19/SAT

공연시간
190분
휴식 포함

관람연령
17세 이상

©Marc Brenner

## NT Live 〈바냐〉
## Vanya

연출 샘 예이츠
원작 안톤 체호프
제작 웨식스 그로브

일시
2024 10/17/THU
2024 10/19/SAT

공연시간
120분
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Marc Bre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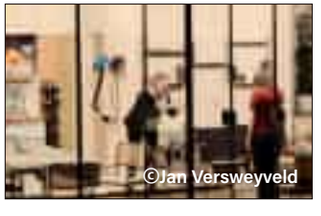
## ITA Live 〈입센의 집〉
## Ibsen House

연출 사이먼 스톤
원작 헨리크 입센
제작 인터내셔널 시어터 암스테르담

일시
2024 10/18/FRI
2024 10/20/SUN

공연시간
204분
휴식 포함

관람연령
17세 이상


©Jan Versweyveld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 마당놀이 모듬전
# Assorted Madangnori

극본 배삼식
연출 손진책
작곡 박범훈
안무 국수호
연희감독 김성녀

장소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2024
11/29/FRI
—
2025
1/30/THU
화, 수, 목, 토, 일 15:00 / 금 19:30

공연시간
120분(휴식 없음)

티켓가격
70,000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해마다 온 가족의 연말연시를 책임졌던 국립극장 마당놀이가 돌아온다. 지난 2014년 〈심청이 온다〉로 포문을 연 이래 많은 사랑을 받은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공연된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세 편의 작품을 엮은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마당놀이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명실상부 '원조 마당놀이 스타 3인방'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이 특별 출연할 예정! 신구(新舊) 배우들이 함께 모여 대중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풍자와 해학의 한마당, 남녀노소 모두 유쾌 통쾌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마당놀이를 기대해도 좋다.

The《Assorted Madangnori》, the quintessential performance for the family every year during the holiday season, is back. Since its debut with 〈Madangnori Simcheong〉 in 2014, this series has garnered much love. This year,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it will present a memorable compilation of four previously performed works. Featuring special appearances by the original 'Madangnori stars' - Yoon Mun-sik, Kim Seong-nyeo, and Kim Jong-yeop, the《Assorted Madangnori》will be a grand event of satire and humor, with both veteran and new actors coming together to provide a refreshing and entertaining experience for the audience.

"겨울은 마당놀이 시즌,
국립극장 대표 스테디셀러"
연합뉴스

"명품 마당놀이의 탄생!
이것이 해학이다"
조선일보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 몬스터 콜스
# A Monster Calls

원작 『몬스터 콜스』
글 패트릭 네스
구상 시본 도우드
연출 민새롬
각색 박지선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2/5/THU — 2024 12/8/SUN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1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40,000원 / S 30,000원

영국 대표 청소년소설 작가 시본 도우드가 구상하고 패트릭 네스가 완성한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자화상 〈몬스터 콜스〉. 병에 걸린 엄마, 부모님의 이혼, 학교 폭력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13살 소년 코너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다. 악몽이 시작된 뒤로 매일 밤 12시 7분이 되면 몬스터가 찾아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삶의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국내 각종 희곡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는 작가 박지선이 원작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했다. 여기에 〈온 더 비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의 작품에서 세심한 구성과 미장센이 가미된 연출로 대중의 호평을 받아온 민새롬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더한다.

Thirteen-year-old Conor, struggling through difficult days and plagued by terrible nightmares every night, encounters a different monster at exactly 12:07 AM every night. Through the stories told by this monster, Conor finally confronts a new truth about life. Park Ji-sun, a writer known for her award-winning plays, offers a fresh perspective on the main characters in《A Monster Calls》. Adding to the anticipation, this production is directed by Min Sae-rom, who has received widespread acclaim for her meticulous composition and mise-en-scène.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 함께, 비발디와 레스피기
# Vivaldi and Respighi

연주 솔리스티-비르투오지
협연 김현숙
김지선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12/10/TUE
화 19:30

공연시간
7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전석 10,000원

기획공연 〈함께, 봄〉을 잇는 〈함께, 작곡가〉가 따뜻한 연말을 위한 만원의 행복으로 찾아온다. 2024년 연말 첫 시리즈는 한국 ·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안토니오 비발디와 오토리노 레스피기를 뽑았다.

이번 연주회는 고도의 기교로 완벽한 연주 기량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연주자 13명이 결성한 유럽 정상급 챔버 오케스트라 I SOLISTI VIRTUOSI가 연주한다. 여기에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김현숙과 〈2024 함께, 봄〉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전 악장을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 함께 협연한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탈리아 클래식으로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겨보자.

Carrying on the spirit of〈The Spring Companion〉concert, the〈Together Series with the Composers〉opens a stage for the year-end with a ticket cost of ten thousand won. To honor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Italy, the concert features Italian composers and violinists Antonio Vivaldi and Ottorino Respighi. I Solisti Virtuosi, a top-tier European chamber orchestra of 13 Italian performers renowned for their superior skills, teams with Kim Hyun-sook, the principal flutist of the Seoul Symphony Orchestra, and visually impaired violinist Kim Ji-seon, who performed Mendelssohn's Violin Concerto at the 2024 stage.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 2025 함께, 봄
# The Spring Companion

연주 한국대학생연합
오케스트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4/12/SAT
토 15:00

공연시간
90분(휴식 있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전석 10,000원

2022년 첫선을 보여 올해 4주년을 맞은 〈함께, 봄〉이 《2025 함께, 봄》이 되어 국립극장 대표 봄 연주회로 자리매김한다. 이번 《2025 함께, 봄》 무대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가 관객과 '함께', 따스한 '봄'을 맞이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장애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와 협주곡 전 악장을 선보인 지난 공연의 연장선으로 이번 《2025 함께, 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로 라디오 DJ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과 소통해 온 김정원과 음악으로 세상을 보는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두 대의 피아노를 이용해 전 악장을 협연할 예정이다. 지난 〈2024 함께, 봄〉의 연주를 맡은 60여 가지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가 이번에도 함께 무대를 빛낸다.

In its fourth year since its debut in 2022, 《2025 The Spring Companion》 brings together perform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o welcome a warm 'spring' with the audience. Following the previous concert led by the world-renowned conductor Gum Nan-se, which featured complete concertos with a pianist and violinist with disabilities, 《2025 The Spring Companion》 will present a vibrant performance. An acclaimed pianist will recreate complete movements on two pianos alongside a pianist with a disability. The Korea United College Orchestra, composed of current students and alumni from over 60 fields of study who performed last year, will grace the stage again.

‡
"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
이데일리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해외초청작

# 사랑의 죽음
## 피비린내가 눈에서 떠나지 않아
## 후안 벨몬테

# Liebestod
## El olor a sangre no se me quita de los ojos
## Juan Belmonte

극본 · 연출 · 무대 · 의상디자인
안젤리카 리델

제작
아트라 빌리스 테아트로
엔티 겐트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5/2 FRI
—
2025
5/4/SUN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2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20세 이상
(2006년 이전 출생자)

티켓가격
R 60,000원 / S 40,000원

스페인 출신 작가이자 연출가, 배우인 안젤리카 리델의 연극 《사랑의 죽음》이 국내 첫 선을 보인다.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연출은 30년 넘게 급진적이고 시각적으로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여왔으며 주로 세상의 악과 폭력을 반영하는 내면의 고통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스페인의 전설적인 투우사 후안 벨몬테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절정 부분인 '리베스토드(사랑의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비극적 사랑과 숭고함에 대해 탐구한다. 영성과 초월성을 잃어버린 현 시대를 맹렬히 비난하며, 강렬한 미장센과 광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Angélica Liddell's 《Liebestod》 merges Andalusian torero Juan Belmonte's spiritual bullfighting with Richard Wagner's music, exploring the origins of her theatre. Belmonte's tireless search for tragic beauty and holiness and Wagner's tragic consummation of love in death are mirrored in Liddell's work. It is also a criticism of the present time, that is increasingly losing touch with spirituality and transcendence in favour of a culture that focuses on reconciliation and consensus. With visually striking references to a Spanish bullring and the rituals of the Catholic church, the production is structured like a rite of incantation.

‡
"안젤리카 리델은 더 이상 연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다."
레제코

"현대 연극에서 안젤리카 리델의 독백에 비할 것은 없다."
뉴욕 타임스

국립극장 기획
National
Theater
of Korea

# 헌치백
# Hunchback

원작 『헌치백』 이치카와 사오
연출 신유청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6/12/THU
—
2025
6/15/SUN
목, 금 19:30 / 토, 일 15:00

공연시간
12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20세 이상
(2006년 이전 출생자)

티켓가격
R 40,000원 / S석 30,000원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중증 장애 당사자의 자전소설 〈헌치백〉이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화려한 무대 연출과 만나 연극 《헌치백》으로 재탄생한다.

중증 척추 장애인 샤카가 남성 간병인에게 임신과 중절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엔을 제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파격적인 서사와 시사성 넘치는 풍자적 표현으로 일본 문학계와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와이프〉 〈그을린 사랑〉까지 매 작품마다 끊임없이 화제가 되며 명실공히 연극계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신유청이 연출을 맡았다. 상식과 통념을 깨뜨리는 〈헌치백〉, 그리고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빚어내는 연출의 만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탄생할지 기대해 봄직하다.

Written by an author with severe disability, 《Hunchback》 won Japan's prestigious Akutagawa Prize with a provocative story and relevant satire that has profoundly impacted Japanese literature and society. The story follows Shaka, who has a spinal disability and offers 100 million yen to a male caregiver to assist her with pregnancy and abortion. The adaptation is directed by Shin Yoo-chung, known for his unconventional works that consistently spark discussion. His keen perspective has established him as a notable figure in the theater scene, attracting high anticipation for seeing how he will bring this compelling story to life on stage.

# 공동주최
# COLLABORATION

(재)서울예술단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창작가무극

# 금란방
# The Golden Chaos Club

극작 박해림
작·편곡 이진욱
연출 김태형
안무 박경수

장소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2024 8/29/THU — 2024 9/28/SAT
화, 목, 금 19:30 / 수 15:00, 19:30 /
토 14:30, 19:00 / 일 14:30 /
*9.17 화 공연 없음, 9.28 토 19시 공연 없음

공연시간
12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14세 이상

티켓가격
무대석 70,000원 / R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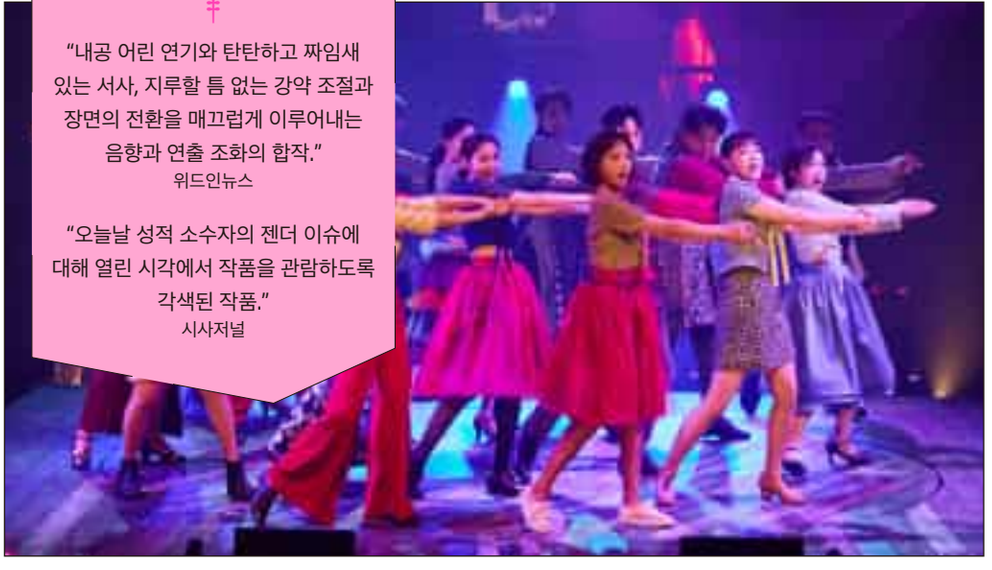
《금란방》은 조선 시대에 있었을 법한 밀주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공연 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전 막간극, 원하는 스토리 전개를 위한 엽전 투표 등의 참여 요소를 담아낸 작품이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객은 18세기 조선 영조 시대 밀주방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역할이 주어지고, 배우와 함께 소통하면서 직접 서신(書信)을 작성해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관객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극 중 엄격하고 절제된 시대적 배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를 바 없다. 《금란방》은 보이지 않아도 느끼고 있는 현실의 한계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며, 공연은 단순 재미를 넘어 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The Golden Chaos Club》 is an interactive performance set in an imaginary speakeasy, inviting the audience to join pre-show skits and vote on story developments using traditional tokens. Upon entering the theater, guests become patrons of an 18th-century Joseon speakeasy, engaging in various ventures like writing and delivering letters with the actors, enhancing the immersion. The stage exceeds mere amusement, bearing messages about dreams and breaking free from the unseen constraints of reality.

‡

"내공 어린 연기와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서사, 지루할 틈 없는 강약 조절과 장면의 전환을 매끄럽게 이루어내는 음향과 연출 조화의 합작."
위드인뉴스

"오늘날 성적 소수자의 젠더 이슈에 대해 열린 시각에서 작품을 관람하도록 각색된 작품."
시사저널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 댄서스 잡 콘서트
# DCDC Dancers' JOB CONCERT

예술감독 이해준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9/25/WED — 2024 9/29/SUN
수, 목, 금 19:30 / 토, 일 17:00
*배리어프리 심포지엄
9.25 수 11:00
*댄서스잡페어
9.27 금—9.28 토 09:00—18:00

공연시간
100분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 해오름 | 달오름 |
|---|---|
| VIP석 70,000원 | R석 40,000원 |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 S석 30,000원 | |
| A석 20,000원 | |

대한민국 무용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댄서스 잡 콘서트》.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무용공연이 펼쳐지며, 배리어프리 공연을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음성해설'과 '터치투어'가 진행된다.

《댄서스 잡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배리어프리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무용수 직군 개발을 위한 직업전환 박람회 '댄서스 잡 페어'가 열리고, '댄서스 잡 페어 콘서트'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한다.

The《DCDC Dancers' Job Concert》is a barrier-free performance featuring various dance companies representing Korea. It includes 'audio descriptions for dances' and 'touch tours' to accommodate visually impaired audiences. The event will also offer diverse opportunities, including a symposium to promote barrier-free dance performances, a Dancers' Job Fair for career transition and development of dancer professions, and hands-on job experiences at performances for career exploration.

* 공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9/25(수) | Dance Bridge : 경계를 넘어서 1 (Beyond Barrier) |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
| | Dance Bridge : 세대를 넘어서 1 (Beyond Generation) |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
| 9/26(목) | Dance Bridge : 배리어프리(Barrier-Free) |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
| | 댄서스 잡 페어(DANCERS' JOB FAIR) | 국립극장 해오름 (로비) Haeoreum Theater |
| 9/27(금) | Dance Bridge : 경계를 넘어서 2 (Beyond Culture) |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
| | 댄서스 잡 페어(DANCERS' JOB FAIR) | 국립극장 해오름 (로비) Haeoreum Theater |
| 9/28(토) | Dance Bridge : 세대를 넘어서 2 |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
| | 배리어프리 심포지엄 | 국립극장 해오름 (로비) Haeoreum Theater |
| 9/29(일) | 댄서스 잡 페어 콘서트 (DANCERS' JOB FAIR concert) |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2024
SPAF

LOD 뮤직씨어터

# 우먼, 포인트 제로
# Woman at Point Zero

작곡 부시라 엘-투르크
연출 라일라 솔리만
음악감독 카나코 아베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4
10/4/FRI
—
2024
10/5/SAT
금 19:30 / 토 15:00

공연시간
6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14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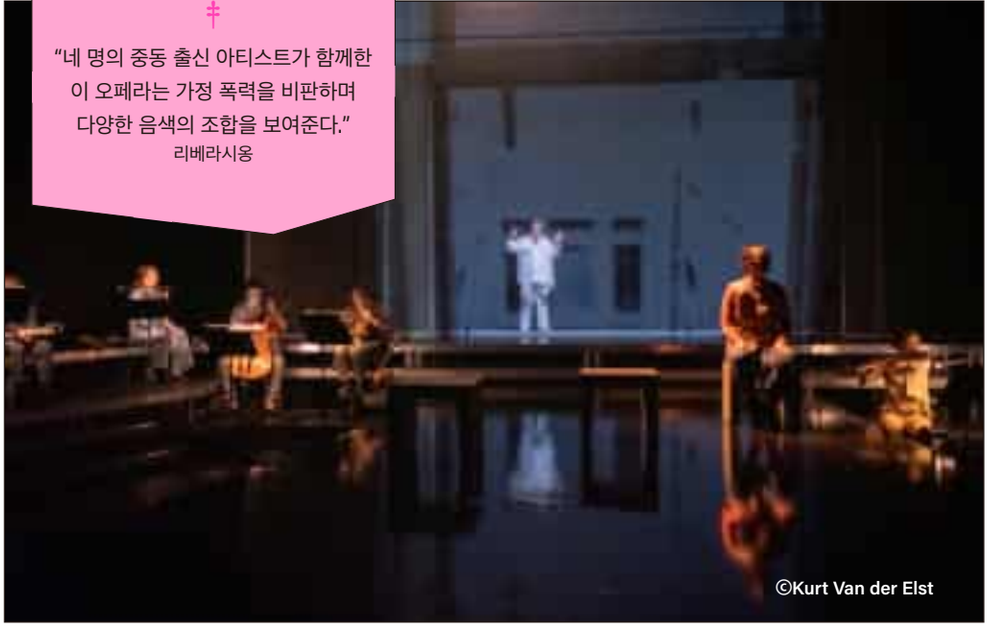
티켓가격
R 60,000원 / S 40,000원

이집트 작가 나왈 엘 사다위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멀티미디어 오페라 《우먼, 포인트 제로》는 가부장적 사회에 맞서 싸우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남성 중심의 체계에 도전하는 해방과 저항의 목소리를 작품 창·제작 과정에 집요하게 녹여냈고, 이는 기존 오페라의 문법과는 사뭇 상이한 형태로 무대 위에 펼쳐진다.

《우먼, 포인트 제로》는 페미니스트이자 활동가인 파트마와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젊은 영화 제작자 사마의 이야기다. 파트마는 사마에게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간의 여정을 들려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불신에서 호기심과 연대감 그리고 마침내 우정으로 발전한다.

Based on the novel by Egyptian writer Nawal El Saadawi, the multimedia opera《Woman at Point Zero》weaves two women's voices resisting patriarchy, creating a production that deviates from traditional opera. The story centers on Fatma, a feminist and activist, telling her struggle to break free from the violence that plagued her life to Sama, a young filmmaker eager to turn Fatma's story into a documentary. As their relationship develops, it transitions from distrust to curiosity, solidarity, and friendship.

‡
"네 명의 중동 출신 아티스트가 함께한 이 오페라는 가정 폭력을 비판하며 다양한 음색의 조합을 보여준다."
리베라시옹




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청년교육단원과 함께하는

# 오페레타 〈박쥐〉
# Operetta 〈Die Fledermaus〉

연출 김동일
지휘 데이비드 이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10/11/FRI
—
2024
10/12/SAT
금 19:30 / 토 15:00

공연시간
180분(휴식 있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70,000원 / S 50,000원 /
A 30,000원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는 졸부 근성의 바람둥이 아이젠슈타인 남작과 남편의 재력만 보고 결혼하지만 그를 경멸하며 살아가는 속물 아내 로잘린데, 연예계 진출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녀 아델레 등이 서로 속고 속이는 와중 제멋대로인 오를로프스키 왕자의 파티에 참석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다. 장면마다 멋들어지게 맞아떨어지는 왈츠와 폴카의 춤곡,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와 기분 좋은 사치스러움을 담은 유쾌한 줄거리의 오페레타 《박쥐》는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는 초심자 관객들도 큰 부담 없이 마음껏 즐겨보기에 충분하다.

** 본 공연은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청년교육단원과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This operetta by Johann Strauss II portrays the escapades of Baron Eisenstein, a nouveau riche philanderer, and his snobbish wife Rosalinde, who married him for wealth but despises him, and their maid Adele, who is anxious to break into show business. Amidst their mutual deceptions, they attend the capricious Prince Orlofsky's ball, resulting in amusing mishaps. The stage presents elegant waltzes and polkas, stunning visuals, delightful extravagance, and an entertaining story.

** This performance is a collaboration with the trainees of the Korea National Opera's KNO Studio.

얘기씨어터컴퍼니
Yaegi
Theatre
Company

# 우정만리
# Journeys of Postal Reminiscences

작 이대영
연출 김예기

장소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2024
10/18/FRI
—
2024
10/27/SUN
화, 수, 목, 금 19:30 / 토 17:00 / 일 15:00

공연시간
10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가격
R 40,000원 / S 30,000원

1876년,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근거로 부산, 인천, 원산 등 조선의 항구를 개방하면서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를 만들었고, 우정총국 개국 이전부터 자국민의 통신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우편국을 세웠다.

1894년에는 우편국이 29개로 늘어났고, 일본은 한국을 강탈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정보 전달 수단인 통신 시설부터 장악하고자 했다. 일제강점기, 역사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문의 사랑과 결혼을 '우편'이라는 매개체에 담아 다채롭게 풀어내고자 한 《우정만리》. 일본의 조선 침략 도구로 사용되어 온 전화와 우편을 조선의 누군가가 오히려 조선 독립의 씨앗으로 활용했다는 작은 상상으로부터 《우정만리》는 탄생했다.

In 1876, Japan opened Korean ports in Busan, Incheon, Wonsan, and more through the Treaty of Ganghwa and tried to dominate communication facilities as a prelude to seizing Korea. The story weaves the themes of love and marriage of a family living through the historical upheaval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using 'mail' as a medium. The play is inspired by the notion that telephones and mail, intended initially as instruments of colonial control, could be repurposed as seeds for Korean independence.

(재)서울예술단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 2024 서울예술단 송년갈라 SPACon
# 2024 Year-End Gala Concert SPACon

연출·음악감독 김성수
안무 예효승, 조인호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4
12/28/SAT
토 19:00

공연시간
10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70,000원 / S 50,000원 / A 30,000원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공연을 선보이며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에서 그동안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대표작품들로 연말 갈라콘서트를 진행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관객들과 함께하게 될 송년 갈라 《SPACon》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울예술단의 주요 작품들의 넘버와 무대로 꾸며지게 된다. 또한 2024년 한 해동안 함께 활동한 서울예술단의 '청년교육단원'들의 특별한 무대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The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a national arts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over 30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presents a year-end gala concert that promises a diverse and dynamic stage.

라이브러리컴퍼니
Library
Company

# 붉은 낙엽
# Red Leaves

원작 토마스 H. 쿡
연출 이준우
각색 김도영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1/8/WED
—
2025
3/1/SAT

화, 목, 금 19:30 / 수, 토 15:00, 19:30 /
일, 공휴일 14:00,18:30
*1.8 수 19:30, 1.30 목 14:00 (1회)

공연시간
11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14세 이상
(2012년 이전 출생자)

티켓가격
R 77,000원 / S 66,000원 /
A 44,000원

연극《붉은 낙엽》은 국내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토머스 H.쿡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작품은 미국의 평화로운 한 작은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는 한 인물에 대한 의심, 갈등 등 내면의 균열로부터 야기되는 가족의 파멸을 흡입력 있게 서술한다.《붉은 낙엽》은 아동 유괴 범죄를 모티브로 삼아 인물 간 신뢰와 의심의 줄다리기 속에서 '가족'과 '삶'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여정을 무대 위에 치밀하게 녹여내고자 한다.

《Red Leaves》, based on the novel by Thomas H. Cook, has been loved by fans worldwide and translated into 15 languages. The story begins with a missing girl in a small town in America, following the compelling narrative of the suspicions, conflicts, and internal fractures that lead to a family's downfall. With a motif of child abduction, it meticulously portrays the tug-of-war between trust and suspicion among the characters, weaving the journey toward the truth about 'family' and 'life' into the stage.

©우란문화재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 2025 시즌
# 오프닝 콘서트
# 2025 Season Opening Concert

지휘 다비트 라일란트
연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1/15/WED

수 19:30

공연시간
100분(휴식 15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50,000원 / S 30,000원
A 10,000원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창단 40주년을 맞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화려하게 연다. 관현악은 물론 오페라, 무용, 국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한 국립심포니의 다채로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국립심포니의 향후 새 걸음에 주목하게 한다.

섬세한 음향과 참신한 곡 해석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다비트 라일란트가 포디움에 올라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신년의 팡파르를 울린다. 관현악의 웅장함, 현대무용의 아름다움, 오페라의 화려함, 그리고 국악의 신명이 우리네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는 찰나의 경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무대에서 희망찬 새해의 서막을 국립심포니와 함께 열어보자.

Honoring a milestone in Korea's symphonic music history, the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marks its 40th anniversary with a grand opening in 2025. Famed conductor David Reiland, known for his delicate sounds and creative interpretations, leads the orchestra with globally acclaimed artists to ring in the New Year with vibrant fanfare. This stage vows a hopeful start, featuring a majestic orchestra, beautiful contemporary dance, grand opera, and traditional Korean music-moments sure to fill our hearts with awe.

©midaby

이마에스트리
I MAESTRI

이순신과 류성룡의 위대한 만남

# 다큐픽션 창작 오페라 이순신
# Yi Sun-sin

음악총감독 양재무
지휘 양재무
연출 이경재
영상연출 강민수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4/25/FRI — 2025 4/27/SUN
금 19:30 / 토, 일 17:00

공연시간
160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VIP 250,000원 / R 200,000원 / S 140,000원 / A 80,000원 / B 60,000원 / C 40,000원

이순신 탄신 480주년 및 이마에스트리 창단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오페라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다큐픽션 창작 오페라 《이순신》이 해오름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다른 예술작품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이자 평범한 민중의 삶에서 위대한 영웅이 된 이순신의 삶을 그린다. 그리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과 류성룡의 결의, 전쟁 중 노예로 잡혀간 조선인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일본에서 꽃피워낸 문화를 휴먼다큐로 선보일 예정이다.

태권도, 민요, 국악 등 K-문화 콘텐츠를 담아내며 거북선과 해전 장면, 이순신의 승천 장면 등을 3D 입체 영상과 웅장한 음악으로 구현해 감동을 전달한다. 더불어 관객들은 창작 오페라의 발전과 웅장한 음악의 진면목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n celebration of the 480th anniversary of Admiral Yi Sun-sin's birth and the 20th anniversary of I Maestri's founding, Korea's leading opera performers unite for the modern docu-fiction style opera《Yi Sun-sin》. This production not only captures life during the Chosun dynasty but also portrays the heroic journey of Yi Sun-sin, who overcame slander and adversity. It highlights the determination of Yi Sun-sin and Ryu Seong-ryong, who saved the nation from war, and tells the story of the Chosun captives who brought their culture to life in Japan, blossoming like dandelion puffs carried by the wind. The opera presents an exhilarating experience, featuring the elements of Korean culture such as Taekwondo, while bringing the turtle ship and naval battles to life with 3D visuals and grand music.

극단 예맥 제작
Troupe YAEMAEK

㈜ 와이에이치그룹 주관
Group YH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Does anyone know this person

극본 장수철
연출 표재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5/1/THU — 2025 5/11/SUN
수, 목, 금 19:30 / 화, 토, 일 15:00, 19:30
*5.11 일 14:00 1회

공연시간
120분(휴식 없음)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가격
VIP 150,000원 / R 130,000원 / S 110,000원 / A 80,000원

6·25전쟁으로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고통을 얻었다. 연극《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격동의 시기를 보낸 한 사람,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힘든 시대를 헤쳐 나간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다. 전쟁의 참상이나 이념 갈등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는 인간의 삶을 진솔하게 다뤄 묵직한 여운을 줄 예정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새로운 연출 기법으로 선보이며 이순재, 고두심, 임동진, 이정길 등 대한민국 국민배우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연기로 무대를 완성한다. 누구나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이 공연을 놓치지 말자.

The Korean War left the country in ruins and inflicted immense suffering through its division. 《Does anyone know this person》 is not just the story of an individual or a family; it is a self-portrait of a nation that has endured a difficult era. The production avoids sensationalizing the horrors of war or ideological conflicts, instead offering a sincere portrayal of people embracing each other's wounds, leaving a profound impression and lasting impact. Featuring top Korean actors, this production tells a story that resonates across generations, portrayed through innovative direction and nuanced performances.

㈜파크컴퍼니
PARK
Company

# 고도를 기다리며
# Waiting for Godot

연출 오경택
번역 오증자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5/9/FRI
—
2025
5/25/SUN

화, 목, 금 19:30 / 수 15:00 / 토, 일 14:00

공연시간
150분(휴식 20분포함)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가격
R 77,000원 / S 55,000원

두 배우의 마지막 무대, 파이널 공연! 2025년 5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구, 박근형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지난 2023년 12월, 국립극장에서 시작해 전국 21개 지역 투어에서 전석 매진과 기립박수의 신화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두 배우가 원캐스트로 무대 위에서 펼치는 깊이 있는 연기와 독창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 감동의 무대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걸작을 두 연극계 거장의 연기로 함께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될테니 놓치지 말자.

In May 2025,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presents a rare opportunity to meet 《Waiting for Godot》, starring Shin Goo and Park Geun-hyung. Starting with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December 2023, this production has garnered critical acclaim, with sold-out performances and standing ovations at 21 venues across Korea. Featuring profound performances and unique interpretations by the two esteemed actors, each cast as the sole performer for their role, this stage will once again captivate audiences. It may be the last chance to see Nobel laureate Samuel Beckett's masterpiece with these legendary figures of the Korean theater.

‡

관객을 압도하는 노장의 에너지! 오래 기억될 또 다른 '고도'의 탄생
조선일보

'부조리극'이라는 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
이데일리

(재)서울예술단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창작가무극

# 천 개의 파랑
# A Thousand Blues

원작 천선란
극작 김한솔
작곡 박천휘
연출 김태형
안무 김혜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Haeoreum
Theater

일시
2025
2/22/SAT
—
2025
3/7/FRI

화, 목, 금 19:30 / 수 14:30, 19:30 /
토 14:00, 19:00 / 일 14:00

공연시간
165분(휴식 20분 포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R 110,000원 / S 80,000원
A 50,000원 / B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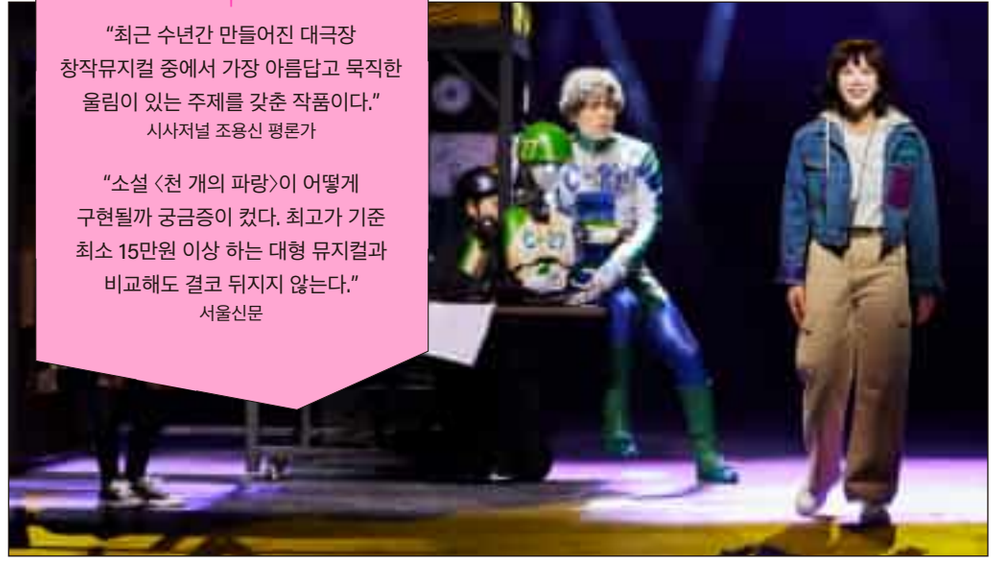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은 천선란 작가의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작인 SF소설 〈천 개의 파랑〉을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2035년 한국을 배경으로 종을 뛰어넘은 우정을 그려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작품이다. 경마장에서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경주마 '투데이', 하반신이 부서진 채로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 경마장 앞 식당을 운영하는 '보경'과 그녀의 딸 '연재'와 '은혜'의 이야기를 다룬다. 원작의 따뜻한 스토리와 함께 배경이 되는 경마장에서의 경기 장면들, 특별한 지능과 감정을 갖고있는 콜리와 미래 사회에 일상화된 로봇의 모습들이 흥미롭게 담긴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대극장 뮤지컬이다.

This large-scale musical 《A Thousand Blues》 is based on Cheon Seon-ran's science fiction novel, the Grand Prize winner of the Korean Science Literature Award. Set in 2035 Korea, where robots are replacing human labor, the story explores the cross-species friendship between a racehorse 'Today' facing euthanasia, a humanoid jockey 'Collie' nearing disposal due to a damaged body, and 'Bo-gyeong', who runs a diner next to the racetrack with her daughters 'Yeon-jae' and 'Eun-hye'. A must-see for the family!

‡

"최근 수년간 만들어진 대극장 창작뮤지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묵직한 울림이 있는 주제를 갖춘 작품이다."
시사저널 조용신 평론가

"소설 〈천 개의 파랑〉이 어떻게 구현될까 궁금증이 컸다. 최고가 기준 최소 15만원 이상 하는 대형 뮤지컬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서울신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 그의 어머니
# MOTHER OF HIM

작 에반 플레이시(Evan Placey)
연출 류주연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Daloreum
Theater

일시
2025
4/2/WED
—
2025
4/19/SAT

화, 수, 목, 금 19:30 / 토, 일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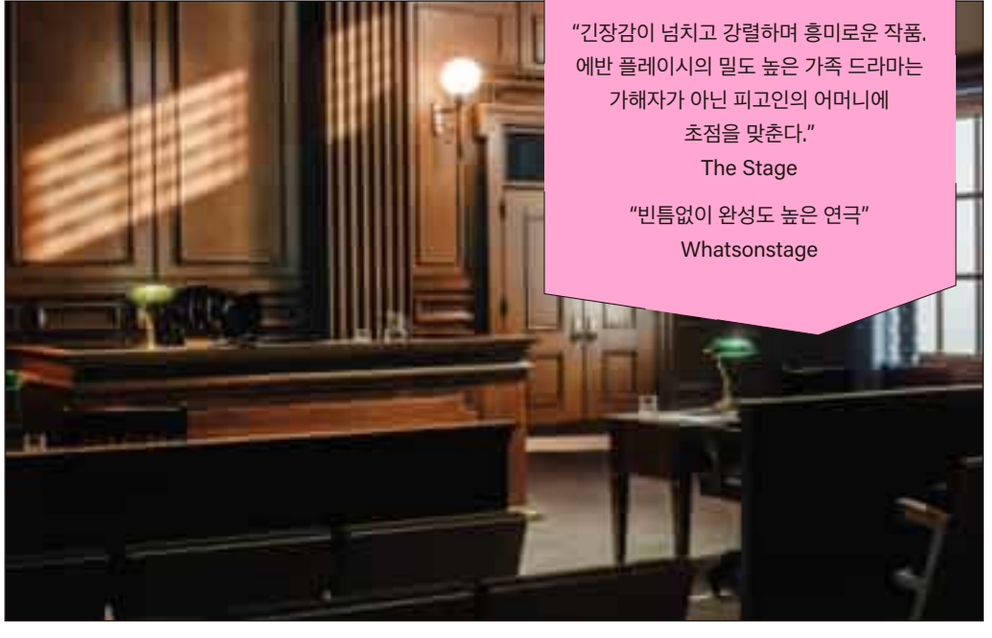
공연시간
105분(변동될 수 있음)

관람연령
14세 이상(2012년 이전 출생자)

티켓가격
R 60,000원 / S 45,000원 /
A 30,000원

국립극단은 에반 플레이시의 데뷔 장편 연극 《그의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인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눈 내리는 겨울, 캐나다 토론토의 평범한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하룻밤 사이
10대 아들이 세 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선고를 받게 되고, 어머니는 판사에게 아들을 청소년범죄(아동형)로 선고해 달라고 신청한다. 판사의 선고 여부는 5일 안에 결정되며 모든 언론과 매체는 그녀와 그의 아들에게 집중된다. 강렬하면서도 도발적인 이 연극은 어머니와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MOTHER OF HIM》 is Evan Placey's debut full-length play. In a snowy winter in Toronto, an ordinary family faces turmoil as the teenage son is accused of raping three women overnight. The mother pleads with the judge to convict her son as a juvenile offender. With the verdict to come within five days, all media attention turns to her and her son. This provocative play《MOTHER OF HIM》explores the limits of a mother's love for her child and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devotion.



‡

"긴장감이 넘치고 강렬하며 흥미로운 작품. 에반 플레이시의 밀도 높은 가족 드라마는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에 초점을 맞춘다."
The Stage

"빈틈없이 완성도 높은 연극"
Whatsonstage



이모셔널씨어터
Emotional
theatre

# 보이스 오브 햄릿
# The Voice of Hamlet

연출 박한근
아티스틱 디렉터 오필영
극작/ 작곡
Emotional theatre
무대, 조명, 소품, 영상 디자인
Emotional theatre

장소
국립극장
하늘
Haneul Round
Theater

일시
2025
5/16/FRI
—
2025
6/28/SAT

화, 목, 금 19:30 / 수 16:30, 19:30 /
토 15:00, 18:00 / 일 14:00, 17:00 *6.6 금 15:00
*5.17 토, 6.21 토 공연 없음

공연시간
8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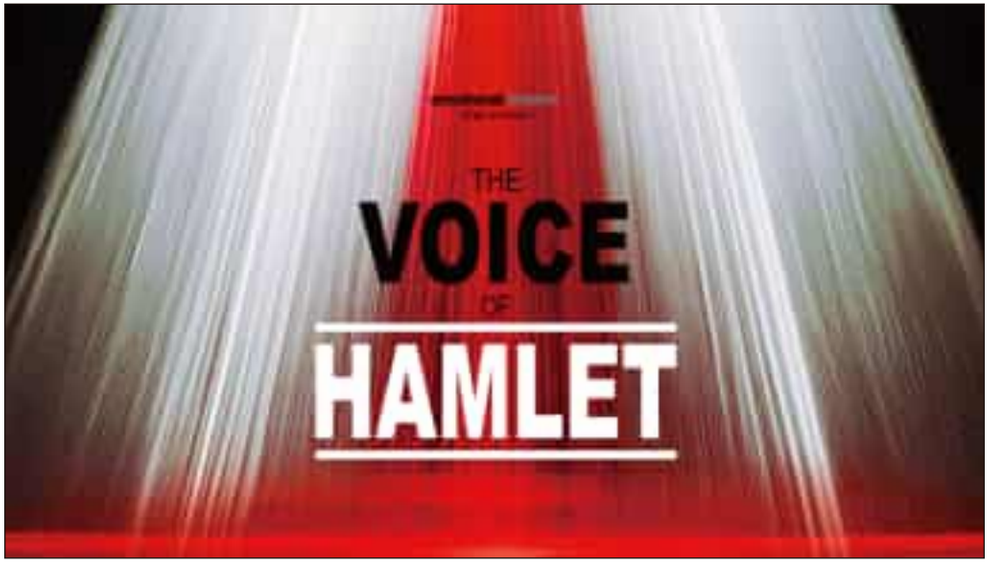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가격
전석 70,000원

〈햄릿〉은 4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며 내일의 이야기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셰익스피어의 〈햄릿〉,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모두 몰입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죽어서도 편안히 잠들지 못한 햄릿의 유령은 악몽 같은 비극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끝없이 방황한다. 복수와 배신, 고뇌와 절망이 얽힌 어두운 길을 헤매며 부르는 짙은 감정의 노래가 라이브 밴드의 섬세하고 강렬한 연주와 함께 폭발적으로 표현된다.

This is not an old, dusty classic. It's a story for today and tomorrow. Shakespeare's 〈Hamlet〉, one of the most famous stories in the world, has been reborn as an energetic, concert-style musical, making it easy and enjoyable for not only adults but also teenagers to appreciate. The ghost of Hamlet, unable to rest peacefully even after death, endlessly wanders through his memories, trying to escape the nightmare-like tragedy. As he navigates the dark paths entangled with revenge, betrayal, anguish, and despair, his deeply emotional songs are explosively expressed alongside the delicate yet intense performance of live band.



# 인사이드 국립극장
# NTOK INSIDE

# 소통하는 국립극장
# NTOK Communication

### 홈페이지 www.ntok.go.kr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극장의 모든 공연정보 및 최신 소식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무료회원(엔톡회원)으로 가입하면 국립극장의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엔톡(NTOK)회원 혜택

- 뉴스레터 — 공연과 행사,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국립극장의 각종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매월 4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수신에 동의한 자에 한함
- 홈페이지 · 전화 · 현장 예매 시 수수료 무료
- 국립극장 기획공연 최대 20% 할인
  공연별 차등 적용
- 문자 안내 서비스 및 각종 이벤트 우선 참여기회 제공

### 공식 소셜미디어

국립극장의 모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공식 소셜미디어를 구독하면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극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 유튜브 — ntong2
- 인스타그램 — ntong_ntong
- 페이스북 — NTOKstory
- X — ntok_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ntok2010
- 네이버 포스트 — m.post.naver.com/ntok2010
- 네이버 TV — tv.naver.com/ntok
- 카카오톡 채널 — 국립극장

### 월간 국립극장

1977년부터 40여 년간 제호와 구성을 달리해 온 국립극장 정기간행물입니다. 국립극장 안팎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예술계 폭넓은 담론을 즐겨보세요.

- 종이책 — 국립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공연예술자료실 II,
  수도권 일부 공연장
- e-book — 국립극장 홈페이지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모아진 닷컴,
  더 매거진
- 기타 —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은 공연의 감동을 더 많은 관객과 나누고자 창극 · 무용 · 국악관현악 등 우수 레퍼토리 공연의 고품질 실황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디테일까지 감상해 보세요.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 archive.ntok.go.kr/gagaguk
- 우리 동네 · 학교 국립극장 — 전국 공공기관, 문예회관, 학교 내 상영
- 달빛 상영회 — 야외 특별 상영회



# 공연예술박물관
# Museum of Performing Arts

### 공연예술박물관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 전문 박물관으로 공연예술의 역사를 기록 · 보존 · 공유하기 위해 2009년 12월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는 장충동 국립극장 별관에서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 내로 이전하여 2025년 새로운 전시실 개관을 준비합니다. 기존 상설전시실은 공연예술박물관 및 별별스테이지 홈페이지의 VR 전시와 해설 영상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별관 내 공연예술자료실은 지속 운영

공연예술자료실

### 공연예술자료실

공연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공연예술자료실에서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archive.nto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자료실(별관 지하 1층)
  공연 영상 등 시청각 자료 및 단행본 도서 자료 소장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휴실)

이용안내 — ntok.go.kr/Museum
이용시간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실)

해오름 북라운지

### 해오름 북라운지

문화예술 북큐레이션, 예술인의 서재 등 품격있는 독서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오름극장 2층 로비를 전면 개편하여 마련한 공간입니다. 최대 150여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국립극장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공연 관람 외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월—금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 종료시까지 탄력 운영
월요일(해오름극장 휴관일) 미운영

# 예술교육 프로그램
# Arts Education Programs

국립극장은 공연예술 저변 확대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우수한 재원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이 시대 관객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예술피크닉은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소풍 떠나듯 가볍게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 스테이지는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예술 뒷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무대 미술, 공연 기획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공연 제작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공연예술 관련 직종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술학교는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합예술교육입니다. 특정 주제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통예술·연극·움직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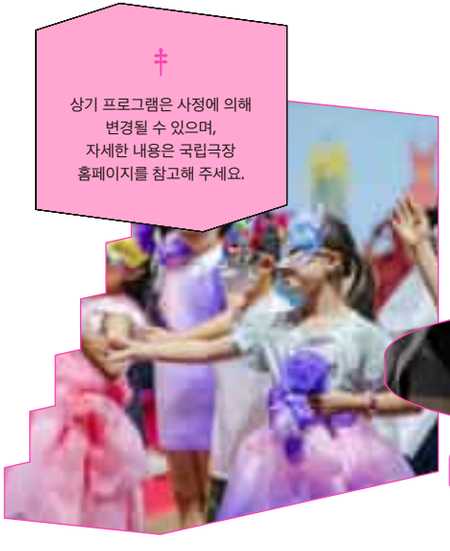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는 판소리로 만드는 음악극인 창극의 창작 전반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을 비롯해 판소리 · 연극 · 무용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며 수강생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탭니다.

아마추어 관현악단은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악을 취미로 배우며 함께하는 기쁨에 갈증을 느꼈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지도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더 큰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예술은 감각적인 접근으로 예술을 즐기는 성인 대상 일일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하루의 경험을 통해 만난 온전한 쉼이 일상으로 이어져 예술을 꾸준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예술아카데미는 국악기 · 판소리 · 한국무용 등 전통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 실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 등 유수의 강사진에게 배우며, 기본기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 NTOK Connect

국립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 공연예술의 인적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전통공연예술 창작자 발굴 ·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 작품의 뿌리가 되는 작창 · 안무 · 지휘 분야의 창작자와 연주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여 예술 창작 제작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젊은 예술가들은 약 1년 동안 다양한 창작 워크숍, 국립극장 전속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 개발, 관객 · 전문가 대상 시연 공연까지 단계별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립창극단 작창가 프로젝트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잇는 새로운 작창가의 탄생!
판소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국음악의 다양한 장단과 음계를 활용해 극의
이면에 맞게 소리를 짜는 '작창'의 중요성에 주목한
프로젝트입니다. 1여 년간의 멘토링, 창작 워크숍, 작품
구성, 작가와의 협업 등 단계별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시연회로 발표하기도 하며, 국립창극단의 정규
공연으로 발전시켜 제작하기도 합니다.

〈작은 창극 시리즈〉
2024/12/18/WED — 12/22/SUN 국립극장 달오름

## 국립무용단 안무가 프로젝트

한국 무용 창작의 미래, 지금 여기에서!
한국무용의 특징을 이해하고 매력을 극대화할 안무가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국립극장의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 하에 〈가무악칠채〉, 〈메아리〉등의
우수작을 배출했으며, 작품의 장편화 작업을 지원하고
댄스콘셉트필름을 제작해 작품 유통의 다각화를 꾀하는
등 신진 안무가 육성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 안무가 프로젝트〉
2024/10/31/THU — 2024/11/3/SUN 국립극장 달오름

##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국악관현악 차세대 지휘자 등용문!
국악 고유의 어법과 색채를 담은 전통 레퍼토리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문 지휘자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최고의 지휘자 멘토와
함께 체계적인 이론학습과 실습과정, 작곡가·지휘자·
연주자 워크숍과 마스터 클래스 등 다각적인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휘자 8명은 현재 악단과 지속적인 교류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 주요 악단의 부지휘자로
재직 중입니다.

〈2024 지휘자 프로젝트〉
2024/08/28/WED 국립극장 달오름

# 국립극장 공연 및 편의시설
# Theaters & Facilities

## 공연시설 Theaters

**Ⓐ 해오름극장 Haeoreum Grand Theater**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1,221석 (휠체어석 12석 포함) 규모의 대극장. 무대 면적 1,200㎡
Proscenium stage with 1,221 seats (including 12 wheelchair seats) Total stage area 1,200㎡

**Ⓑ 달오름극장 Daloreum Theater**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512석(휠체어석 6석 포함) 규모의 중극장. 무대 면적 456㎡
Proscenium stage with 512 seats (including 6 wheelchair seats) Total stage area 456㎡

**Ⓒ 하늘극장 Haneul Round Theater**
원형 무대를 갖춘 627석 규모의 국내 최초 돔형 공연장. 무대 면적 340㎡
First domed theater in Korea with 627 seats. Total stage area 340㎡

## 부속·편의시설 Affiliated & Convenient Facilities

**❶ 별관 Annex**
공연예술자료실 / 별관 지하1층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휴실
↗ P.65

**❷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하늘쉼터 / 하늘극장 1층
1F, Haneul Round Theater
달쉼터 / 달오름극장 지층
Ground Floor, Daloreum Theater
09:00—19:30
02.2280.5817

**❸ 해오름 북라운지 Haeoreum Book Lounge**
해오름극장 2층
2F, Haeoreum Theater
평일 Tue-Fri
09:00—18:00
주말·공휴일 Weekend·Holidays
10:00—18:00
* 월요일 휴무(휴관일 휴무)
* Closed on Monday
02.2280.4026, 5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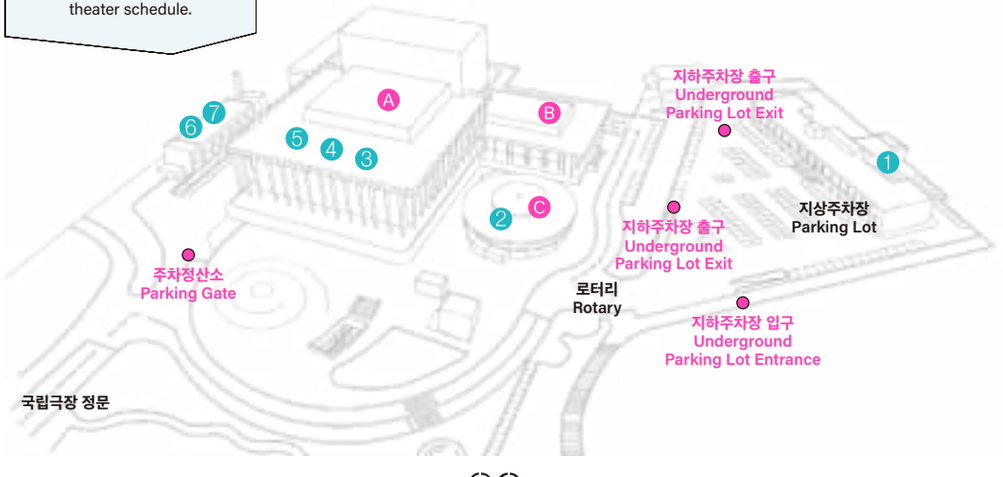
**❹ 센트럴 윤잇(Yunit) Restaurant**
해오름극장 로비층
LF, Haeoreum Theater
화요일—일요일 Tue—Sun
11:00—22:00
0507.1357.9580

**❺ 고객지원센터 Customer Service Center**
공연 안내, 티켓 예매, 셔틀버스 운행시간 등 극장 이용 시 각종 문의 및 편의시설 안내
Providing every service for customers such as ticketing, program information and shuttle bus schedule.
평일 Mon—Fri
9:00—18:00
주말·공휴일 Weekend·Holidays
10:00—18:00
공휴일인 월요일 (휴관일 휴무)
Closed on Observed Holiday Monday
점심시간 Lunch Break
12:00—13:00
02.2280.4114

**❻ 구내식당(하늘자리) Cafeteria**
기계동 2층
2F, Machinery Building
중식 Lunch 11:30—13:00
석식 Dinner 17:00—19:00
* 석식은 예약제로 운영
* Dinner is by reservation only
02.2280.5843

**❼ 카페(하늘자리) Cafe**
기계동 2층
2F, Machinery Building
평일 Mon—Fri
09:00—19:30
주말 Sat—Sun
09:00—18:00
02.2280.5843

운영시간은 공연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working hours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theater schedule.






# 국립극장 공연 및 편의시설
# Theaters & Facilities

## 버스 By bus

- 420번, 01번 녹색순환버스 국립극장·반얀트리호텔 정류장 하차
- 144, 301, 7212번 장충동·동국대입구 정류장 하차 → 420번 환승 후 국립극장 하차
- Bus route 420, 01 runs directly pas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light at 'National Theater of Korea, Banyan Tree Seoul'.
- Routes 144, 301 and 7212 stop on Jangchung-dong, Dongguk Univ. Entrance → Transfer to 420

## 지하철 By subway

- 3호선 동대입구역(6번 출구, 국립극장까지 도보 15분 소요) → 동대입구역·장충동 정류장에서 01번 녹색순환버스 환승 후 국립극장·반얀트리호텔 정거장 하차
-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Dongguk Univ. on Line No. 3, which is a 15 minute walk.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 → Transfer to Namsan Circulation Bus 01

## 국립극장 셔틀버스 By shuttle bus

관람(탑승)객의 수요와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따라 탄력적 운행

### 공연 전 Before the performance

- 타는 곳 Boarding
  — 동대입구역(3호선) 6번 출구 동국대입구·장충동 정류장
  —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운행구간 Route
  — 동대입구역(3호선) → 국립극장
  —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National Theater of Korea
- 운행시간 Timetable
  — 매회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분~15분 간격 탄력적 운행
  —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to 2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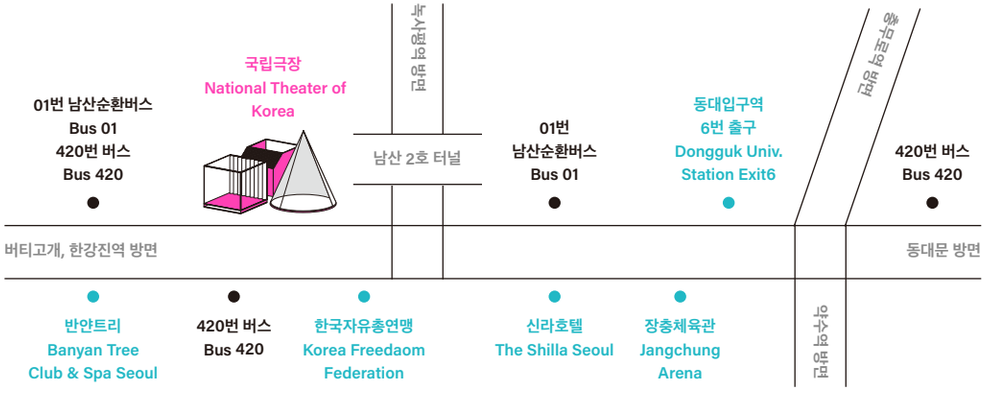
### 공연 후 After the performance

- 타는 곳 Boarding
  — 하늘극장 앞 셔틀버스 승강장
  — In front of Haneul Round Theater
- 운행구간 Route
  — 국립극장 → 동대입구역(3호선) 1번 출구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 5번 출구 맞은편 광희사거리 앞
  — National Theater of Korea → Exit 1 of Dongguk Univ. Station(Line No. 3) → Across from Exit 5 of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Line No. 2,4,5)
- 운행시간 Timetable
  — 공연 종료 후 10분까지 운행
  — Available for 10 minutes after the performance

## 주차장 이용 안내 Car parking

문의 02.2280.5815

- 공연 관람객: 5시간 미만 5천원 (공연 관람권 내 바코드로 무인정산기에서 할인 정산)
  5,000 won up to 5 hours for ticket holders (Use the barcode on your ticket to get a discount on parking fees.)



# 2024—2025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패키지 티켓

자유로운 선택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시즌

## 프리패키지 II

40%

R, S석
각 50세트 (총 100세트)

2025/1/1 — 2025/6/29
작품 중 10작품 이상 선택

- R석/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전 작품 동일등급으로 구매가능합니다. (균일석 제외)
- 상설공연, 〈마당놀이 모듬전〉, 〈고도를 기다리며〉는 패키지에서 제외됩니다.
- 〈붉은 낙엽〉은 1~3차에 나눠 티켓오픈이 진행됩니다. 티켓오픈에 따라 구매가능한 일정이 다르오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공연으로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구매 완료 후 선택한 구성(공연 및 개수)변경은 불가합니다.
- 패키지는 일부 공연의 부분 환불 및 취소가 불가 합니다

새로운 움직으로 선보이는 우리 춤!

## NDCK 패키지

국립무용단 〈미인〉, 〈파이브 바이브〉

40%

~~60,000원~~
36,000원
S석 (50세트 한정)

다양한 소재, 독창적 형식으로 즐기는 국립극장의 가무악

## NTOK 가무악 패키지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국립무용단 〈미인〉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I〈베스트 컬렉션〉

40%

~~160,000원~~
96,000원
R석 (50세트 한정)

- NTOK 가무악 패키지 구매자 한정, NTOK 전속단체 × 배민 신메뉴킬 '스페셜 굿즈 세트'를 증정합니다.
- R석 잔여좌석 조기 매진 시 패키지 판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기예매 종료 후 판매 (12월 9일부터 판매 예정)

국악관현악의 정수를 만날 시간!

## NOK 시리즈 패키지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II 〈베스트 컬렉션〉
관현악시리즈IV 〈스위치〉

40%

~~100,000원~~
60,000원
R석 (50세트 한정)



# 2024—2025
# National Repertory Season
# Package Ticket

정기적으로 만나는 우리소리, 우리 음악의 즐거움

## 완창판소리 패키지 II

〈완창판소리〉 2025년 상반기 4편

35%

~~80,000원~~
52,000원
균일석 (50세트 한정)

## 정오의 음악회 패키지 II

〈정오의 음악회〉 2025년 상반기 3편

35%

~~90,000원~~
58,500원
R석 (100세트 한정)

**패키지 티켓 예매 안내**

- 모든 패키지는 동일공연으로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각 패키지 선택 후 일부 공연의 부분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국립극장 엔톡(NTOK)회원만 1인 2세트 구매가 가능하며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매 후, 공연별로 좌석을 지정해야만 예매가 완료됩니다.
- 패키지 구매 후, 좌석 미지정 시 선택 공연의 매진으로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패키지는 해당 패키지의 첫 공연 1일 전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첫 공연 관람 이후 개별 공연에 대한 부분 환불 및 취소불가)
- 구입한 패키지 상품을 취소해야 환불이 완료됩니다. (패키지 상품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금액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 안내
# Booking Information

## 온라인 예매

-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 24시간 예매 가능
  단, 공연 관람 1일 전에는 오후 5시까지 예매 가능

## 전화/현장예매

- 전화 고객지원센터 02.2280.4114
  서비스 번호 선택
  1번 공연 안내 및 예매
  2번 패키지 티켓 안내 및 예매
- 현장예매 고객지원센터 방문 (해오름극장 L층)
- 운영시간 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10:00—18:00
  공휴일인 월요일(휴관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공연유무에 따라 탄력 운영

## 개별공연 할인

- 엔톡(NTOK) 회원 최대 20% 공연별 상이
- 문화패스(만 24세 이하 청소년 혹은 대학생) 30%
- 경로할인(만 65세 이상) 50%
  더 자세한 할인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 참조

## 티켓 수령

관람 당일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수령

-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 일부 공연 제외
- 티켓 수령 시 할인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시
  미 지참 시 차액 지불

## 취소 및 변경

- 공연 관람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관람 당일 티켓 취소 및 변경 불가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04621, Rep. of Korea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